



성도의 벗 7  
1973

# 사랑의 힘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경**전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옳으나 하면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그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1 4 : 9 참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간의 사랑은 다른 여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가 주고 받기에는 너무 큰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질을 갖춘 구세주요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완전한 사랑을 비록 우리가 다 따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부단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어리석음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랑과 사랑으로 되돌아 가며 순종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분쟁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며 마침내 사태는 악화되어서 간악함이 창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심판이 이 땅의 불의한 자들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간악함과 슬픔과 고난과 인간의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합당하게 역사될 수만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이해와 화평 속에 하나로 묶여 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력소가 바로 사랑이란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지극히 부드럽고 사려 깊으며 무한한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리잡게 된다면 인간 세상의 가장 고귀하고 영예로운 이상이 실현될 것이며, 이 세상을 하늘의 왕국으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지상의 천국이 되는데, 이는 사랑이 없이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완전과 화평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은 과거나 현재에 다 적용되는 위대한 계명입니다. 사랑은 따스한 가정에서 그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애타하게 대해 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들은 서로 친절과 이해로 대하며 저들의 아들 딸과 더불어 사랑과 신뢰를 추구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행복과 복지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후 5 : 8)

이제 나는 이 시간에 자녀들의 행복과 안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어머니이신 매비

디나 배일리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글은 그녀가 1970년 7월 세상을 떠나기 16년 전에 써어졌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했던 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선물입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누워 있다. 깊은 수면을 하는 나에게 좀 이상스러운 일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남긴다.……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하거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다오.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때라도 말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얻게 될 영광, 그것이 어떤 영광의 세계이든지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살고 싶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몇가지 간곡히 당부해야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돌보지 못하는 때라도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모두 똑같이 사랑했듯이 너희는 서로 시기하지 마라. 나는 그래도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서로 서로 성내서 다투지 마라…… 속된 패락을 쫓지 마라. 사탄의 힘은 상당한 것이고 늘 너희를 노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권세와 영향력에 경계심을 버리지 말아다오.

“내가 너희를 모두 사랑했음을 언제든 기억해다오.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너희들의 부모가 될 특권을 얻었으니 영원을 두고 다시한번 우리가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아다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부모된 사람들에게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옳은 판단력과 사랑과 지혜를 허가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자녀에게 의롭게 살며 진리를 사랑하며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젊은이들을 축복하사 저들이 부모님의 모범을 좇으며 현명한 사랑의 가르침을 좇으며 모두가 이해와 조화와 화평 속에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㉞

# 순서

# 성도의 벗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3년 7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96호  
 발행인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수

1973년 7월호

# 벗

제9권 제7호

고문 위원회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교내 연락 책임자  
 존 이 카, 번역 및 배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회 잡지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교육 자료 책임자

- 대관장단  
 해롤드 비 리  
 앤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킥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기

정 가 : 1권 100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5불  
 항공7불

|    |                         |             |
|----|-------------------------|-------------|
| 2  | 말일에 예언자 주신<br>하나님 감사합니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
| 5  | 성도는 안전하게 산다             | 보이드 케이 패커   |
| 8  | “네 형제를 굳게하라”            | 폴 에이치 던     |
| 10 | 역사적인 비네트의 저녁            |             |
| 19 | 정책과 프로그램                |             |
| 20 | 하나님과의 약속                | 엘 에이치 오 스토브 |
| 21 | 지문의 신비                  | 던 어세이       |
| 23 | 심심풀이                    |             |
| 24 | 친구가 친구에게                | 하트만 렉터 2 세  |
| 26 | 사랑스러운 여왕 에스터            | 메리 엘렌 졸리    |
| 28 | 숨겨진 그림찾기                | 쥬디 카페너      |
| 29 | 극복하는 자가 되라              | 존 엠 테일러     |
| 34 | 질의응답                    |             |
| 38 | 건포도 나무                  | 휴 비 브라운     |
| 40 | 기러기의 비유                 | 마이클 디 팔머    |
| 42 | 벨파스트로 부터의 보고            | 허버트 에프 머리   |
| 45 | 물론 유우머                  |             |
| 46 | 스테이크 부장 메시지             | 이 호 남       |
| 47 | 내외 소식                   |             |

## 표지 설명

...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  
 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  
 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  
 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마태복음 6 : 28-29, 31)

침례요한은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과 음식으로 살  
 았다. 자신을 위한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오로지 광야에서 예  
 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일에 모두를 바쳤던 것이  
 다.

#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감사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이 말일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아온 것과 같은 그토록 중대하고 지대한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행사가 일찌기 다른 집회 장소나 연극 무대 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대는 뉴욕에서 오하이오 또 그곳에서 미조리로 다시 일리노이로 그 다음에 유타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모임의 여건도 달라졌으려니와 중대한 행사의 일부를 맡았던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이 지지되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 체제가 바뀌는 때 특히 신권의 정원회로서, 혹은 참석한 성도로서 우리들의 지지와 신뢰를 전하며 우리들의 성약을 다시 새롭게 하며 이로서 우리들의 감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역대 대관장들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열쇠와 권능은 이제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 같은 열쇠와 권능이며 차이가 있다면 보다 완숙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에는 불과 소수의 회원 밖에 없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을 관리하였으나 그가 순교를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당한 때에는 회원 수가 수천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브리감 영이 대관장이 되셨을 때, 교회 회원은 약 4만이었습니다. 1877년 존 테일러가 새로 대관장이 되어 관리하실 때에는 14만 5천명의 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윌포드 우드럼이 대관장이 되신 1887년의 회원수는 19만 2천명이었습니다. 1898년 로렌조 스노우가 대관장이 되셨을 때 회원수는 약 25만 3천명이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가 대관장이 되셨을 때는 28만으로 늘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가 대관장직을 맡으셨을 때에는 회원 수가 약 50만에 이르렀습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시절에는 약 100만이었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이 취임하신 1951년 회원수는 11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가 대관장 직을 이어 받으셨을 때 회원 수는 280만이었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대관장직을 맡으셨을 때 회원은 320만으로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 대관장님이 혼란이나 비난이 뒤따르는 투표에 의해 위원회나 혹은 대회에서 선택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셨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난 3년을 두고 교회의 대관장은 세 번 바뀌었습니다. 데저렛 뉴우스의 권두언에는 이런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책임자의 자리를 그토록 빈번히 교체할 경우 대개의 조직체는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거나 머뭇거리는 상태에서 진로에 대한 결의가 지극히 불투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안정된 자세로 임할 수 있었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을 갖는 분명한 목적 의식으로 일할 수 있었다.” (데저렛 뉴우스 1972년 7월 8일자 페이지 A-6)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차에는 잘못이나 서로 다툼이나 인간의 야망이나 이기적인 움직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

실 지도자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살펴보면 볼수록 중요하고 흥미진진합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1972년 7월 7일에 교회의 대관장이 되셨으나 그가 사도로 성임된 것은 1941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전임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직분에 임명되기 아주 오래 전에 예임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일 세기 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직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천국 회의에서 이미 그 목적에 성임된 사람이다.”(조셉 필딩 스미스 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40년판 365페이지)

초대 사도 중의 한 분은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 권능은 그가 처음으로 천사를 보았을 때 부여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가 어떠한 은사를 갖게 되었을 때 부여된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신권의 권능을 가진 누군가가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만에 그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의 안수로서 그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세 제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그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임하셨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저들에게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그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성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하여 그의 형제인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열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이 시대에 함께 찾아와 다 같이 요셉(스미스)과 율리버(카우드리)의 머리 위에 함께 손을 얹고 그들이 갖고 있던 바 사도의 직분을 저들에게 성임했습니다.”(조지 큐 캐논, 복음 진리 [시온 출판사 1957년] 제 1권 253-54페이지)

142년 전인 1830년 4월 6일 이래로 교회에는 거룩한 지도 체제가 단 한 순간도 끊일 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대 대관장 중에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권능과 열쇠를 영의 세계로 가져 가서 이 교회가 빈 손으로 서게 하신 이는 안계십니다. 7월 2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교회 대관장 직분을 위임 받았으며 요셉 스미스께서 말씀하신 바 그 예임의 절차에 좇아 합당하게 지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임에 관해서 부대관장 조지 큐 캐논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요셉 스미스가 성임되기 전에 이미 은사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그가 성임받기 전에 이미 번역을 할 수 있었으므로 선견자였습니다. 그가 성임받기 이전에 이미 놀라운 많은 일들을 예언했으니 예언자인 것입니다...교회가 이 땅에 조직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를 주셨으므로 그는 이미 계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육신으로 성임을 받기 전에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였던 것입니다”(복음 진리 253페이지)

1972년 7월 7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 모든 은사를 갖고 있었읍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갖고 계셨으며 1941년 4월 10일 이래로 갖고 계셨던 모든 열쇠와 온전한 신권의 권능을 금년 7월 7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서 다시 확인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자 이와 같이 정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열 네명의 사도가 열쇠를 갖고 계시며 그중 열두 사람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고 두 분은 대관장단의 보좌로서 필요한 때 사도의 권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분들은 그 서열에 좇아서 대관장직에 성임됩니다.

요셉 스미스 시대 이래 교회에는

모두 약 80명의 사도가 임명되었으며 그 중 열 한분만이 대관장으로 성임되었습니다. 주는 그 종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고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이미 예임된 자만이 그 자리에 허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탄생은 모두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도가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으며 그런 연후에 살아있는 예언자가 그를 성임합니다.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어서의 순위에 대한 질서는 아주 정연합니다. 사도들은 모두 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잘 훈련된 회원들은 교회의 지도 체제 계승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가 주님께서 받아 가지고 있던 모든 열쇠와 권세와 권능을 십이사도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엔다우먼트와, 씻음과, 기쁨 부음을 부여했으며 저들을 위하여 인봉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새로운 선지자를 지지하고 저들을 지지하겠다는 성약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주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며 이는 리 대관장님에게도 적용됩니다 :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수 1 : 5)

“백성이 말하되...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여호수아 24 : 21, 24-25)

그렇다면 이 경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성약이 되어야 합니다. 초기의 지도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우리 대관장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을 바라보며

특히 바다 사면이 온통 빙산으로 덮여 있고 무서운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나는 그 눈과 그의 결의를 바라보며 나 스스로가 훌륭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배에 탔던 사람들은 장로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가 밀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 진리 271페이지)

이제 우리는 리 대관장님을 지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미 여러분께서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왕국의 신비에 관한 열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는 영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영원한 원리입니다. 만일 누가 교회의 잘못을 꼬집어 내며 남을 저주하면서 오직 자기만이 의로우며 다른 형제들이 모두 질에서 벗어 났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외치고 일어난 그 사람이 배도의 큰 길로 떨어졌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도 분명히 배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56-57 페이지)

케논 부대관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가 남의 허물을 꼬집어 내고 불평의 이야기를 하며 복음의 영의 뜻과는 일치되지 않는 헛된 이야기나 생각을 두고 입을 벌리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며 겸양을 다해서 겸허한 태도를 취하며 그 죄를 마땅히 주님께 빌어야 할 것이니 바로 그러한 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입니다.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스스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인간 중에서 하나님과 독생자를 제외하고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님에게 다 적용됩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는 저들을 하나로 모으시고...저들을 택하셨으며 저들에게 거룩한 신권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하여 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대변자가 된 것입니다. 주는 저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삼으셨으며 시온의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셨고... 그가 저들에게 주신 거룩한 신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저들은 심판대에 서서 저들에게 맡겨진 권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이를 잘못 사용했다면, 즉 주님의 백성들에 관한 구원 사업에 쓰지 않았거나 주님께서 관심을 갖으시는 일에 쓰지 않았다면 주 예수가 오시는 날 저들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저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복음 진리 276페이지)

위의 말씀을 전하신 사도님께서서는 주가 그의 판단하고 책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은 합당하게 조직된 교회에 주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신권의 권능을 대항해서 소리를 높여 대적하는 자는...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같은 책)

윌포드 우드렘 대관장님께서 그의 임기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이가 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지상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되도록 간구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나나 혹은 이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서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할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서는 나를

이 직책에서 몰아내실 것이며,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역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밖으로 이탈시키려는 사람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렘의 선교집 [북크래프트사 1969] 212-13페이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고 부동한 확신을 안겨 줍니다.

또 다른 지도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직책을 원한다고 해서 교회의 어느 직책에 임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누가 교회의 어느 직책을 심히 갖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그의 욕심이 그의 진로를 오히려 방해할 것이니 이는 인간의 요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임무를 맡는 절차의 예가 됩니다.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천거하시고 저들이 잘못을 범할 때에는 다시 바로 잡으십니다.” (조지 큐 캐는 1898년 5월 21일 데저렛 주간지 708페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대관장과 그의 보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받들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을 마음을 다해서 지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그 음성을 요단강에 들리게 하시며 니파이인들에게 들리게 하시며 뉴욕의 숲 속에서 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간증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신 바로 그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며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분임을 간증합니다. 또한 나는 리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하며 우리가 그를 따르면 왕국으로 통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를 여러분께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성도는 안전하게 산다



1973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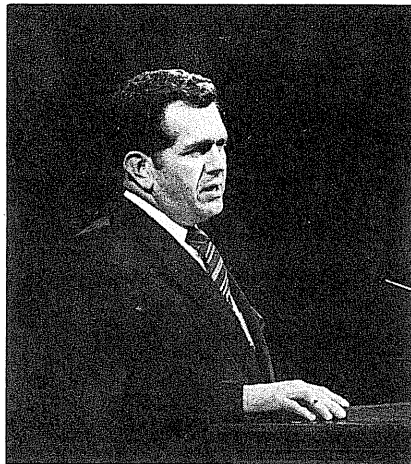
교회 활동 중 가정 복음 교육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 여러 형제들이 신전에 모여 리 대관장님의 인자하신 권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체험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임에서 영감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때 그 모임에서 우리가 부른 개회 찬송은 “관대한 그 제명”이었습니다. 그 후 기도에서 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찬송가에 있는 구절 중에 “성도들 안전히 주님 지키시네”를 인용하셨습니다. (찬송가 97장) 그리고 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도들을 안전히 지켜 주시는데 대한 감사를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돌봐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 때 나는 불안과 폭력으로 싸인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중에도 서로 서로를 보호하고 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다.” (엡 2:19)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한 뜻은 참으로 의미 심장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된 후에는 결코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홀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각각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서로 서로를 도움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은 교회의 조직이 요구하는 체제에 모든 여건이 부합되는 것입니다.

청년 남녀가 비록 부모 곁을 떠나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돌보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들이 결혼한 후에는 또 다른 유대가 계속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나 외톨백이로 홀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이제 자기 슬하를 떠나서 스스로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 어머니는 저들이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새로운 자세로 생활에 임하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모두가 예견한 일이며 가장 바람직한 일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길은 영원한 하나의 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니일 10:19참조) 그들은 결코 외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주어지나 간혹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여라도 교회는 돌보아 주는 자로서 저들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늙어 그 중 한 편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홀로 남게 된 연로한 부인은 그래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조직은 홀로 남은 그 자매의 영적인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아끼지 않아 그 자매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보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신권 소유자 두 사람이 신권 역원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엔 감독의 지명으로 소위 가정 복음 교육 교사라는 명칭으로 각 회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회원 개개인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제가 신권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만 교회에는 이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고 우리의 구미를 돋구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얼마 전 성찬식을 끝내고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들어선 아들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노상 그 또래의 젊은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솔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좋았습니다. 성찬식이 좀 재미있었지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성찬식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에 아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고등학교 평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신권 가정 복음 교육과 복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죽어라 하고 듣고만 있으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자 난처해진 그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 “얘야, 바로 여기 계신 펄커 장로님께서 전 교회의 가정 복음 교육을 주관 하시는 분이시란다.”라고 했습니다.

“잘알아요,” 그는 말했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지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 두 프로그램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재미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미가 없고 간에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젊은이 여러분들은 그 신권 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등학교 평의원과 나를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 과정과 연습을 반복시키는 운동 코치나 몇분에 끝내지 않고 여러 시간을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음악 교사와도 같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일의 뜻을 가르치고 생애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에 주의를 쏟도록 가르치는 부모들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과 활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요구되는 근본 되는 것들이 자주 등한시되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눈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 필요없는 찌꺼기를 날라다 주며 질병과 상처에 대비하고 있는 혈관과 피의 기능이 있습

니다. 이 혈액의 공급은 심장의 고통으로 한시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근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손가락 끝의 조그만 상처가 더 큰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장이 멈추어 지거나 커다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는 심장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의가 집중되어야 할 곳은 따로 있는 법입니다.

이상하게도 대개의 회원은 가정 복음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를 귀찮은 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보호와 보살핌이 오게 됩니다.

자기 동반자를 방문하는 이십대를 넘지 않은 그런 젊은이를 상상해 봅시다. 하루 저녁에 다섯 가정 혹은 여섯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방문한 가정에 용기를 부여 주며 영적인 도움을 간구하도록 일러 주고 모두에게 자기 이외의 사람이 적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병이 나면 곧 도움의 손길이 미치도록 조치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들의 방문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권 가정 복음 교육 교사가 상호부조회의 방문 교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 이외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심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땅히 걸어야 할 제 길을 걷지 않는 어린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전할 수 있는 최대의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하늘의 그것 처럼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정지됩니다. 절망에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받게 됩니다. 슬픔

은 위로를 받습니다. 병이 난 사람은 축복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부단히 진행되며 이러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준비하신 근본적인 사업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수도 있으나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준비될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변경되었고 여러 가지 교회의 부가적인 프로그램이 정리되었으나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의 근본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이 없다면 교회는 조만간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다는 펄커미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은 후식이며 조미료이며 양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을 특히 젊은이들의 삶을 즐겁게 해 줍니다. 나는 물론 이러한 교회 활동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결코 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와 교회 활동과의 관계를 끊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양념도 치지 않고 후식과 같은 맛을 갈지도 못한 그런 심심한 흰 쌀밥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보조 조직 활동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을 게을리 할 때는 여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오렌지 쥬스와 초코렛을 겸한 젊은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인 운동 모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만 그것이 저들을 살찌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을 위한 노력과 수고보다 더 효율적으로 젊은이들을 구



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는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의 목적이 가정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젊은이들이 보통 알고 있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정 복음 교육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제반 활동이 보다 훌륭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의 생활을 고무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로 창의적이며 고무적인 방법을 연구해 낼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이 프로그램을 보다 열심히 이행할 수 있는 날에 이를 것입니다.

덧을 놓고 여우를 잡아서 그 털을 팔아 돈을 모은 사냥꾼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겨울철에 자기가 갖고 있던 덧을 잘 훈련된 젊은 조수에게 맡기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조수에게 어떻게 덧을 놓아야 하고 어느 곳에 놓아야 하는가도 잘 가르쳤습니다.

봄이 되어 그는 그의 옛 일터로 돌아와서 조수가 여우를 두어 마리 밖에 잡아 놓지 못한 것에 지극히 실망을 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가르쳐 준 그대로 했나?”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아, 아니오.”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더 훌륭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감독 여러분, 신권 직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권 가정 복음 교육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권고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 교사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책임을 맡고 있는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명해 낸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언젠가는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길로 되돌아 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생각나는 경전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하

고서도 이를 이루지 아니하던 때가 있더냐?

“나는 명령하나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약속을 취소하나니,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때에 저들이 마음 속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저희 상은 땅 아래로 숨어 버리며 하늘에서는 내려오지 아니할 연고니라.” (교리와 성약 58 : 31-33)

아무 뜻이 없는 일상적인 방문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나 방문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가정 복음 교육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임무를 소홀히 여기시거나 그저 반복되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육으로 보내는 시간과 가정 복음 교육을 위해서 걷는 걸음과 여러분이 두드리는 집 수호와 여러분이 찾아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 가족을 위한 노력은 모두 배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자기가 방문한 가정으로부터 상당한 것을 배운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비록 그것이 봉사와 희생이기는 하지만 과연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쪽이 방문을 받는 가정이나 아니면 그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교사나 하는 문제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제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정 복음 교사의 일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가정 복음 교사의 후임 동반자로 부름을 받아 외부와 출입이 전혀 없는 연로하신 자매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외부와 전혀 연락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우리가 두드리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매님이 기력이 다해서 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침대에 누운채로 그녀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 자매님이 레몬 아이스 크림을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방문하기 전에 자주 아이스 크림 집에 들렀습니다. 우리들이 그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아이스 크림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그 집 방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지금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로해서 저의 선임 동반자가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절차를 좇아서 홀로 그 자매님택을 방문했고 방문하기 전에 레몬 아이스 크림 반통을 사서 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매님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다음 날 아주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손자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내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린 손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나의 결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셨음인지 자매님은 내게 “오늘밤엔 내가 가르쳐 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그 자매님은 무엇인가를 내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고, 나는 그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평생을 두고 잊지 않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매님께서 친히 겪으신 삶의 교훈을 내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 자매님께서 훌륭한 젊은이와 신전 결혼을 하신 몇년 후에 저들이 한참 신혼 생활을 즐기며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을 때 하루는 사서함 B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당시에 사서함 B는 솔트레이크시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선교사 부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함께 먼 이국으로 가서 선교 사업을 해야 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선교 사업을 했고 몇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족들에게 열과 성을 쏟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후 어떤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크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고 마침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언짢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

다. 그런데 지금 그 자매님은 그때 도대체 무슨 일로 논쟁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 다툼이 끝이 났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만...나는 그이를 따라 문까지 나갔어요. 그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큰 길로 걸어 나갈 때 나는 그 때 그의 등 뒤에 매고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날 있었던 사고의 경위를 들려 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십 평생을 두고” 자매님은 호느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서 들은 마지막 이야기가 심한 욕설이었다고 하는 자책 때문에 지옥에서 살 겁니다.”

이것이 그 자매님께서 젊은 가정 복음 교사에게 전하신 메시지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나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나는 이 교훈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격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종종 그 때 내가 방문하던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때 우리가 그 가정을 방문하느라고 소비했던 시간과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쓴 돈 얼마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작은 체구의 자매님이 이 세상을 떠난지도 오래입니다. 그 때 나의 선임 동반자였던 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때 가정 복음 교사로서 많은 것을 배운 그 교사로서의 지울 수 없는 체험은 아직도 나와 더불어 삽니다. 나는 내가 젊은이들의 결혼 주례를 맡아서 또 다른 경우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매님의 메시지를 인용해서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육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지명을 받고 가정을 방문하는 신권 소유자는 수척 배로 갚으시는 주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가끔 나는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냥 가정 복음 교사 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 교사 밖에라고 하

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하다는 뜻이겠지요. 가장 중대한 일을 수행하는 자 앞에 그저, 밖에 라는 말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신권 가정 복음 교사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가의 울림은 진리로 공명됩니다:

“성도들 안전히 주님 지키시베.

온 자연 주관하는 손길

우리 보호하리.”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합니다. 이 교회는 주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능과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는 홀로 온 세상의 스테이크와 선교부와 지부를 직접 다스리지는 않습니다만 권능과 열쇠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셔서 그 모든 스테이크와 와드와 지부에 손길을 뻗치시며 모든 가정과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밀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도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卍

1973년 7월호



## “네 형제를 굳게하라”

새로운 회원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성도의 책임

**주**님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

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니파이삼서 11:38) 주님께서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23년 전 가을 나는 남부 캘리포니아 체프먼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나는 당시 철학가요 교육가요

교수였던 가이 엠 데이비스 박사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23년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삼 주 전 금요일 저녁, 나는 것처럼 지혜가 놀랐던 나의 스승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되시어 침례의

물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때 그 옛 스승의 침례를 바라보면서 누가가 기록한 바, 주님이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 너희가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하라.” (눅 22 : 32) 데이비스 형제가 속해 있는 와드의 감독님, 가정 복음 교사님, 그리고 와드 회원 여러분, 이제 새로 침례를 받으신 나의 형제를 굳게 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제 경험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굳게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의 가정에 대한 유대를 강화한다고 생각하면 더 절실하게 정리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 막내 딸이 국민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못 흥분한채 부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 엄마는 학교에 입학하는 그 일이 유익한 경험이 되고 그로써 그녀가 긍정적인 태도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옆에서 도왔습니다.

마침내 오래 기다리던 입학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정의 밤을 계획해서 그녀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도왔습니다.

밤 늦도록 그녀는 입고 갈 옷을 정리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침 상을 모두 받고 있는데 딸 아이는 평상복으로 우리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나는 학교 가지 않을래요.” “아니 왜 그러니?” 나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교엘 가면 어디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애.”

여러분께서는 제 딸 아이가 정말 하고 싶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아빠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런지 모르겠어요. 친구는 사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실까요?



폴 에이치 던 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내가 교실에 가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나를 잘 받아 줄까요? 이러한 염려는 우리들이 새로운 세계로 발길을 옮길 때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 대답이 어떠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자동차로 학교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예비 종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피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옆에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열발 쭈 같이 걸었습니다. 딸 아이는 내 다리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린 아이들 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아주 철학적인 논조로 “아빠,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애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학교에 보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문 안에 들어서자 이번에 딸 아이는 나의 두 다리를 함께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여럿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귀엽고 명랑한 작은 친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물랐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구세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작은 친구 아이는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켈리아, 잘 있었니?”

“응”

“너의 교실이 어디니?” 그러자 딸 아이는 그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됐어, 그 밤은 바로 작년엔 내가 배우던 반이란 말야. 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켈리아가 미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이들은 벌써 저만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나는 그 때 내 딸 아이가 나를 돌아다보며 지었던 표정을 잊지 못하며 그 때 내게 가르쳐준 설교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젠 가도 좋아요. 이젠 아빠가 없어도 된단 말예요.”

하나님 아버지, 친구를 맞아들이고 친구를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는 작은 친구와 어른 친구들을 주변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월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나는 우리들이 모두 우리들의 형제들을 굳게 해 주어야 한다는 주님의 권고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감독님과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와 다른 회원들이 나의 스승인 가이 엠 데이비스를 따듯하게 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는 참됩니다. 나는 리 대관장님을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성임되었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며 이 간증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아멘. ☩



# 역사적인 비네트의 저녁

비네트—말일성도 작가가 쓴 그림 연극—은 연례 물론 예술제에 발표되는 브리감 영 대학의 연극 활동의 일환입니다.

금번 성도의 빛 7월호에는 1972년 예술제에 소개된 간단한 그림 연극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그림 연극은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것입니다. 비네트는 개척자들의 편지 내용에서 발췌된 사실, 저들의 여행, 일기 혹은 대회에서의 말씀 등이 소개되며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작품일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되는 그림 연극은 서부로 이주해 온 성도들의 생활상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며 또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곳에 소개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저들과 유대를 함께 하는 성도라고 하는 유대 의식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이나 시나 혹은 나라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입회하여 성도가 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여 주어야 하는 개척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때때로 남의 질시를 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박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소개되는 만화 연극은 독서물로서도 훌륭하겠지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정의 밤이라든가 혹은 교회의 반 활동에서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맡은 역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읽어두어야 하겠습니다. 한두 번의 연습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서로 어울리는 가정의 밤과 같은 모임에서는 역을 맡은 사람들이 막 뒤로 간다든가 가족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족이 모두 앉아 있는 자리에 함께 어울려서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교실에서 발표할 경우 낭독자가 걸상에 앉는다든지 회중들 앞에 설 수도 있고 낭독자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 앉아도 좋습니다.

상향회 홀이나 그보다 더 큰 장소에서 발표할 경우 무대라든가 조명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낭독자들은 모두 검정색으로 옷을 입던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아주 찬란한 색으로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발표하는 내용에 알맞게 개척자들이 입었던 복장을 갖춘다든가 혹은 그들의 풍습에 따라 의상을 정리함으

로써 당시의 흥취와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낭독은 주변의 여건에 맞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모양을 바꾸어도 좋습니다.

청취자들은 발표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불러야 할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든지 앉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듣든지 전체중에서 하나를 읽든지 혹은 모두 다 읽든지 가정의 밤에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더 큰 회중 앞에서 발표하게 되든지 아니면 혼자서만 읽든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와 배열이 어떻게 되든지 이러한 비네트는 듣는 사람이나 낭독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감흥을 안겨줄 것입니다.



## 어름

등장인물 :  
수잔나 타일러  
타일러씨  
선교사  
제인 타일러

수잔나 : 아버지와 오빠들은 모두 우리 언니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 침례 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니는 제일 먼저 침례를 받았습니다. 1832년 12월 경에 교회의 장로 한 분이 저희 마을로 오셨습니다. 언니의 초대로 그분은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타일러씨 :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 제 딸 자식이 몰몬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 다시는 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 해주었는데도 침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해 두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딸 아이를 침례주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총을 가지고 그리로 가겠습니다!

선교사 : 타일러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신다면 선생님의 따님께 침례를 베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의 진리가 옳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 진리가 옳다면 그 진리를 좇아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따님을 가로막는 선생님의 머리 위에 정죄가 임할 것이며 선생님의 따님은 무고할 것입니다.

수잔나 :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약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몰몬 교회가 옳으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과 의논하기로 결정하셨고 마침내 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버지는 차후에 책임을 면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타일러씨 : 제인, 네가 임의로 결정하렴. 이분들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만약 이분들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종교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종교 같구나. 그러나 만약 거짓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종교일 것이고 말야. 이 사람들이야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겠지만 나는 모르겠거든. 그러니 잘 생각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한다.

제인 : 아버지, 저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침례를 받는 것이 저의 임무일 것 같습니다.

수잔나 :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언니와 몰몬 교회 장로님과 가족 몇을 소마차에 태우고 이리호까지 약 이마일을 달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들은 약 삼인칭으로 언 열음을 깨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 제인 그로보의 일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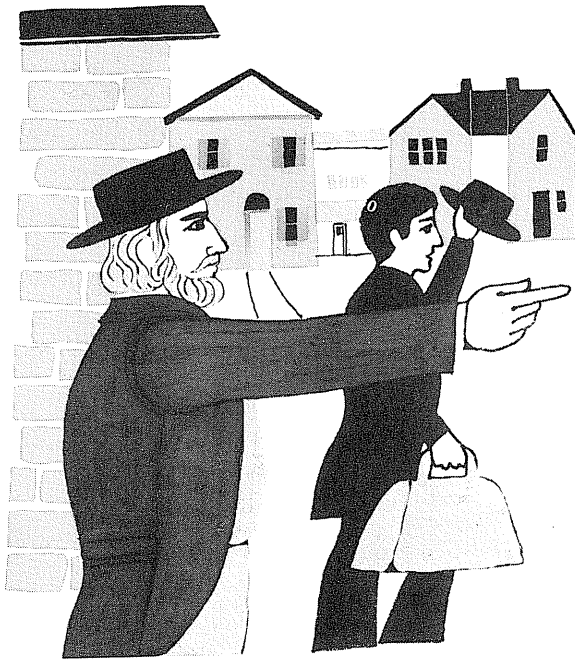
제인 그로보 :

어떤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산 딸기를 따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태너 신부님은 가벼운 말 마차에 말을 묶으셨다. 그런 다음 라이만 가의 두 자매님과 그분의 손녀와 나와 태너 신부님은 출발했다. 우리가 숲에 도착하여 노인 어른께 우리가 산 딸기를 따고 있는 동안 집에 가서 쉬시도록 말씀드렸다.

잠시 후에 어린 소녀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져서 딴 곳으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태너 신부님이 보이는데 까지 왔고 인디안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마차에 뛰어 오르고 태너 신부님이 막 출발하려고 했을 때 인디안 넷이서 마차를 붙들었고 다른 인디안 둘이서 말 고삐를 잡았다. 그러자 또 다른 인디안이 나를 마차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나는 겁도 났고 온 몸이 뻗뻗해 지도록 긴장하게 되었다. 태너 신부님께 내가 마차에서 뛰어나가 도움을 요청하려 가도록했다. 그러나 그는 “안된다. 이젠 너무 늦었어.” 하시는 것이었다. 태너 신부님의 얼굴은 흰 종이장처럼 되었다. 인디안들은 그의 손수건과 시계를

빼앗았다.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나를 마차에서 끌어 내리려고 했다. 나는 조용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했다. 내가 끌려내려 가고 있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하셨고 큰 힘을 얻어서 인디안의 언어로 저들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저들은 말을 출발시키고 마차를 출발시킨 다음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저들은 내게 고개를 숙이고 쾌히 응락을 하면서 그 응락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내게 분명히 알려 주었다. 태너 신부님과 작은 소녀는 말없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 보았다. 나는 우리가 처한 입장을 분명히 깨달았다. 저들은 태너 신부님을 살해하고 마차를 불사르고 그리고 여자들을 불모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다. 그냥 내게 그렇게 느껴졌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우리들 모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눈 다음 빼앗겼던 물건을 돌려 주었다. 태너 신부님은 돌려받은 것 중에서 손수건 하나를 다시 되돌려 주었다. 이때 다른 여인 두 사람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왔고 우리는 모두 집으로 향해서 길을 떠났다.

주님께서는 내가 인디안들에게 저들의 언어로 지껄인 것이 어떤 뜻이었는데 알려주셨다.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여러분 인디안 전사들은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군요. 여러분은 위대한 영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 마음에 품은 생각을 모두 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곳에 우리들 아버님의 열매를, 과일들 견우려 왔읍니다. 우리들은 이 곳에 여러분들을 해치러 오지 않았읍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를 해치고 혹은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 머리의 머리칼 하나라도 손을 댄다면 위대한 영이 여러분을 땅에 팽개치실 것이며 여러분은 다시는 숨도 못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집으로부터 이곳까지 달려왔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곳에 선한 일을 행하러 왔고 여러분을 다치러 오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살생하는 일과 잔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들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계속하는 한 발전하거나 번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지역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재목과 나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위대한 영의 재산입니다.”



# 리차드 벤슨

등장인물 :  
 감독  
 리차드 벤슨  
 히버 시 킴블  
 보베 벤슨

감독 : 리차드 벤슨은 1816년 영국 와이팅튼에서 출생했으며 1895년 센타 크리크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거두십시오. 그는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당시 그를 타인의 뉴 캐슬에 선교사로 보낸 바 있는 히버 시 킴블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리차드는 그곳에서 47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보베가 그 중 한 명입니다. 그 후 그는 영국에 가서 일하도록 나부로부터 또 다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때 그는 보베와 결혼한 사이였으며 그녀를 솔트레이크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

나 그들이 막 자리를 잡으려고 했을 때 브리감 형제는 저들을 이백 오십 마일이나 떨어진 광야, 센타 크리크로 이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는 벤슨 형제를 꼭 알아 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리고 부름을 받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갔습니다.

청중 :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64장의 1절과 2절을 부른다.

리차드 : 1866년 4월 나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보름이나 마차를 몰아 솔트레이크의 대 협곡으로 갔습니다. 그곳 그 하나님의 태버나클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나는 히버 시 킴블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버 : 리차드 벤슨 영국으로 선교사를 가시오.

감독 : 그 후 리차드는 히버 형제님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히버 : 벤슨 장로, 언제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리차드 : 저 킴블 형제님. 아무래도 집에 가서 아내인 보베와 의논해야겠습니다.

히버 : 의논이라구요? 리차드, 그러면 한 달은 허송입니다.

리차드 : 그렇지만...

히버 :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리차드 : 저 곡식도 심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하고 또 뒤집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한해도 아니고 두해 겨울을 위해서 뿔나무도 좀 준비해 두어야 보베와 아이들이 견딜 겁니다.

히버 : 리차드, 나는 보베를 잘 압니다. 보베는 당신이 안계셔도 일을 할 거예요. 리차드 형제가 나가는 와드 감독에게 작별인사를 대신 하도록 내가 이르고 가족을 돌보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마침 행상들이 내일 모레 미조리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벤슨 장로, 돌아 오실 때 철공쟁이 몇 짝 데리고 오시고 석공도 몇 명 데리고 오십시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시운을 건설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리차드 : 왜 내가 돌아가 아내인 보베에게 작별인사도 하지 않고 갔느냐구요? 나도 역시 보베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나를 침례하신 히버 시 킴블이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킴블 형제님이 만일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가야 합니다.

감독 : 보베 포레스터, 즉 리차드 벤슨의 아내는 1820년

에 태어났고 19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베 : 감독이 나를 찾아 오셔서 문을 열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독 : 당신의 남편은 다시 광야를 지나 영국으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보베 : 나는 마치 내려치는 몽둥이로 얻어 맞은 들소처럼 덤덤히 서 있었습니다. 2년. 그는 24개월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720일이며 17,520시간입니다. 그는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집에 와서 내게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감독 : 벤슨 자매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보베 : 나는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들은 감독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내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알며 또 내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데로 가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참 세상에! 그렇더라도 그는 집에 잠깐 들를 수는 있었을 겁니다!

아니지요, 그가 그냥 가면 적어도 4주는 일찍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늘 내가 형편없는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방편으로 대처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칠백 스무날을 매일 같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만한 그러한 최악의 상태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도 모두 내가 해야하고 집안 일이건, 집밖의 일이건, 또 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보아 주고 잘못했을 때는 바로 잡아 주고 그런 일도 내가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콜레라 라든지 천연두라든지 혹은 기타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 밤중에 일어나서 울기라도 한다면 그 뒤치닥거리도 내가 해야하는 거지요. 언제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쉽게 바닥이 나질 않았고 벨감은 더 오래 벨 수 있었으며 밀가루 통의 밀가루도 쉽게 바닥이 나질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칠백 스무장 짜리 달력을 찢아서 126, 144, 000조각을 썼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헤아리면서 기다리면 마침내 남편이 문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 곳에 떠나 보냈던 사람을 맞을 때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회중 : 찬송가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의 마지막 두절을 제창한다.



## 손수레 대대

등장인물 :  
해설자 1  
브리감 영  
엘리자베스 테이트  
제인  
해설자 2  
사라  
폴리  
폴리의 어머니  
치스레트 보이  
윌리엄 테이트

해설자 1 : 새로운 개종자들은 거의 다 시온으로의 집합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 본부가 있는 솔트레이크시까지의 여행은 참으로 길고 험한 육로였으며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멀고 지루하고 험한 항해 길이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회원들을 보다 쉽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시온의 스테이크에 도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되었다. 1853년 브리감 영 대관장님께서서는



손수레로 무리를 지어 광야를 횡단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셨다.

브리감 영 : 성도들은 가축을 몰고 손수레나 포장마차에 불필요한 것들은 신지 말고 양식이나 조금 준비하여 즉시 미조리 강을 출발하여 빠른 시간 안에 이 곳으로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거나 혹은 그 밖에 성가신 짐을 가지고 여행하는 편 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보다 빠르게 그리고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곳을 빨리 출발하면 출발할 수록 매년 우리들을 찾아와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질병에서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 미조리 강을 출발한 때로부터 먹어야 할 90일분의 식량만 실으면 됩니다. 보통 가정의 경우는 마차 하나면 충분하겠고 대가족일 경우 두 마차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의 모두를 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설자 1 : 그리하여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유다주까지 약 천 이백 마일을 여행할 준비를 했고 이에 대비하여 손수레를 준비했다.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던 과거의 모든 일을 초월한 이 여행은 이제까지 그들이 체험한 그 어느 것보다도 의미가 다른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 저는 엘리자베스 세비어 데이트입니다. 저는 1833년 인도 봄베이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귀족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제일가는 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나이 14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저희 가족은 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내게 남편인 윌리엄과 교회를 모두 던져버리고 저들과 함께 인도에 남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아들이 급작스런 콜레라로 숨을 거둔 후 나는 나의 부모나 친구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먼저 시온으로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길을 떠날 당시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저의 건강이 여의치 못했으므로 저는 출발을 늦춘 것입니다.

제가 인도를 출발했을 때 저는 이미 저의 부모로부터 상속권을 박탈 당했습니다. 영국으로까지의 여행 길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저의 단 하나의 자녀인 어린 딸이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형편에서 여행하는 도중에 병에 걸려 죽어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저는 윌리 손수레대라고도 불리우는 네번째<sup>1</sup> 대열에 끼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제인 : 저의 부인인 존 울로튼과 엘리스 울로튼 그리고

저의 형제 들은 영국에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 후 우리는 기차로 아이오와까지 왔고 그 곳에서 다른 성도들과 합류하여 손수레 대열에 끼었습니다. 저는 당시 15세였고 자매 중에 가운데 딸이었습니다. 1856년에 솔트레이크 대협곡을 향한 제5 손수레, 그러니까 말틴<sup>2</sup> 손수레대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해설자 1 : 1856년에 길을 떠난 다섯 개의 손수레 대대중 세계의 대대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솔트레이크 대협곡에 도착했다. 나머지 두개의 대대인 윌리 대대와 말틴 대대는 여러 날을 지연해야 했고 아주 힘든 고생을 해야 했다.

해설자 2 : 에드워드 말틴 손수레 대대는 남노소 56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41개의 수레와 7개의 포장마차와 30마리의 황소, 그리고 50마리의 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저들의 손수레의 규격은 앞서 길을 떠난 포장마차와 같은 것이었으며 바퀴의 굵기도 일정해서 앞서간 포장마차 자국에 맞도록 되어 있었다. 수레 앞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끌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짐실은 마차를 뒤에서 밀어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다. 처음 출발해서 얼마동안은 순조로운 여행이었다.

제인 : 우리는 전진하면서 노래를 불렀지요. 비록 우리들의 옷은 먼지와 때에 찌들었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닳지만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275마일이나 300마일이 넘는 먼 길을, 멀고 험한 길을 아이오와주로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전진을 계속하면서 부른 노래 중에는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어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설자 1 : 포장마차 대가 두번 째로 멈춘 곳은 네브래스카의 플로렌스였다. 그후 제이 에이치 레이틀리는 존 테일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윌리 대대와 말틴 대대는 이곳에서 예정했던 것 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손수레의 구조가 광야를 횡단하는 여행에는 적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새로운 바퀴로 갈아 끼워야 했고 바퀴 부분에는 철제의 부속이 붙어 있어서 짜여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했는데 그렇질 못해서 문제였습니다.”

제인 : 말틴 대대는 8월 24일에 시온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날 때 그 곳에 정착해 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손수레를 끌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그 때 병약했고 한 밤이면 말할 수 없이 피곤했지만 그러나 시온으로의 그러한 여행이 영광스

1. 500명으로 구성됨. 1856년 7월 15일에 출발, 1856년 11월 9일에 도착

2. 567명으로 구성됨. 1856년 7월 29-30일 출발, 1856년 11월 30일 도착

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 : 나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회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고 성도들과 합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이오와에서 존을 만났을 때는 마침 손수레대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도 역시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었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아이오와와 네브래스카를 횡단하는 길고 긴 여행 기간 동안 서로 절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가 시온에 도착하는 대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인 : 사람들이 앞뒤에서 끌며 간간히 보급 포장마차를 배열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젓차는 소와 작은 가축들을 함께 몰면서 전진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장관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 많은 수레에는 그 주인의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색깔이 되어 있었으며 “진리는 이긴다”, “시온행 특급차”, “희생 뒤에는 축복이다”, “즐거운 물몬” 등등의 구호도 써어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라고 하는 행진의 노래는 단조로운 하루의 일과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해설자 2 : 확고 부동한 준법 정신과 엄격한 대대의 규율로 해서 적어도 하루 12마일에서 15마일의 전진을 계속해 나아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끈질기게 여행을 계속했다. 지쳐 쓰러지게 되었거나 병이 났거나 한 사람만이 보급 마차에 타고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다.

밤이 되면 쉬면서 레크리에이션을 가졌어요. 저녁을 끝내고 나면 여기 저기 집집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운데에 다가는 하늘로 치솟을 듯한 불을 붙여 놓아 그곳에 포장마차 본대가 머무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는 놀이를 벌리고 모두 취침 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저녁 활동에 참가하곤 했습니다.

해설자1 : 모닥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둥그렇게 원을 지어 모이면 엄숙하게 주변이 정리된다. 가물거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모두 다 소리를 모아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용기를 얻곤 했던 그 노래를 제창하는 것이다.

회중 :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86장을 부른다.

해설자 2 : 서부로 이주해간 수천 수만의 개척자들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여러 해를 두고 불러왔다. 이 노래는 이제 온세상 방방곡곡에 있는 성도들의 값진 유산이 되었다.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부를 때에는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했고 찬송가의 맨 마지막 여운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면 여행자들은 광야에서의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 그 해 가을은 빨리 왔어요. 그리고 밤엔 서리가 내렸죠. 산 중턱의 초목들은 모두 황금색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떡갈나무의 잎새들은 모두 겨울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었어요. 와이오밍의 계곡 그 아래로 말티 대대는 희망을 안고 전진을 계속했지요.

폴리 : 우리는 내가 열세 살 때 영국 췌섹스 카운티 부라이튼에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시온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재산을 모두 팔고 아이오와시로 떠났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들은 소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샀고 암소가 끄는 포장마차와 친막을 샀어요. 그 때 우리는 말티 대대에 소속되어서 보급 마차를 담당하라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플레이트강에 도착할 때까지 하루에 십 오 마일에서 이십 오 마일의 거리를 매일 여행했습니다. 그 때 강에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 왔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열네명의 동사자가 났습니다. 우리는 친막 본대로 돌아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어서들 나가자”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어머니가 왜 우셨는지를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9월 23일이었지요. 우리는 그 동생에게 에디스라는 이름을 주었지요. 그 여동생은 6주를 살고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스위트 워터 강 어귀에 묻고 왔습니다.

해설자1 : 10월 어느 아침, 포트 라라미의 외곽에 입한 여행자들은 실망의 아침을 맞이한다. 그들이 기대했던 음식과 의복의 보급은 저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 찬서리가 내리던 날 아침, 17파운드 밖에 되지 않는 의복은 그 곳에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제인 : 매일 매일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진장한 남자들은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저들의 앞을 노려보았어요.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저들의 부모 뒤를 바싹 따라 붙었지요. 바람에 떨어져 흩어지는 낙엽은 이리 저리 발길에 채였고 여인네들은 목도리를 더욱 단단히 여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앞으로 더 숙이고 앞으로 전진했어요.

해설자 2 : 드디어 갑작스럽게 닥친 겨울은 눈발을 휘몰아 왔다. 저들이 참으로 두려워하던 두려움의 대상이 현실로 눈 앞에 닥친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을 예고하는 무거운 눈발이 쌓여갔다. 이제는 다 낡아서 발가락이 들어난 그런 구두는 거의 맨발을 드러내었다. 겨우 몸을 감싸고 있는 의복은 그나마 젖고 얼어붙기 일쑤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갖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져 이 삼일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사태가 긴박해 진 것이다.

치스레트 보이 : 우리들의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나게 되었을 때 마침 우리 옆으로 들소 떼가 지나갔고 우리 대원 몇명이 나서서 저들 두 마리를 쏘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참 멋진 파티를 했지요. 우리 식구들은 들소 고기로 배를 채우고 얼마를 남겨서 주일 날 식량으로 보관했습니다. 나는 그 날 배가 몹시 고했으므로 맛있는 냄새를 마구 풍기는 들소 고기를 놓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들어 있는 작은 창칼을 꺼내서 하루에 두번씩 한 조각이나 두 조각을 내어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고기의 행방을 물었을 때 나는 몹시 배를 맞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내게 고기를 잘려 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예, 배가 몹시 고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자코 돌아서서 눈에 고인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해설자 2 : 말틴 대대는 개척자들이 체험한 최초의 눈 사태에 발이 묶였다. 눈발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눈 사태로 돌변했다. 발과 손가락이 모두 얼어붙을 지경이었으나 남자들은 모닥불을 계속해서 지켜야 했고 어머니들은 그 주변에 참으로 지쳐 쓰러진 아이들을 데리고 불가로 모였다.

제인 : 저는 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제 발과 다리와 온몸이 모두 얼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몸을 눈으로 비벼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발을 물통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메빌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추위는 심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참 많은 걸 남겨두고 왔습니다. 나의 오빠 제임스가 보통 뼈처럼 그날 밤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 그 날도 하루 식량이 도착되지 않았고 그 기대를 다음 날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식량은 도착되지 않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첫번 그리고 두째 번 그리고 세째 번 사망자. 생명은 마치 기쁨이 떨어 진 등잔의 불이 아주 조용하게 꺼지듯이 그렇게 쉽게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인 : 남자가 죽었습니다.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추위에 너무 지쳐서 동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던 남자가 그 날 저녁에는 땅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 저들이 신고 있던 신은 너무 너무 낡아서 그대로 맨발이 되었으며 저들은 형겔과 각반으로 발끝을 들들 말았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들의 발은 형편없이 깨지고 통통 부어올랐으며 저들이 지나가는 눈 길은 온통 붉은 피

로 물들 지경이었습니다.

해설자 2 : 기아는 흑심했다. 마차 바퀴를 묶었던 가죽 끈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을 끓여야 했다.

제인 : 하룻 밤에 여섯, 여덟, 혹은 열명이 한꺼번에 죽는 때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죽은 시체는 손수레가 지나가는 길 옆에 묻혀졌습니다. 하룻 저녁에는 열 여덟 명이 죽었습니다. 땅은 푹푹 얼어 붙었고 눈은 너무 깊이 쌓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무덤 하나를 크게 파고 모두를 합장하기로 했습니다.

사라 : 제 애인은 와이오밍 벌판에서 폐염에 걸렸고 우리가 미처 결혼을 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긴 털 목도리를 형제들에게 내 주어 몸을 싸도록 부탁했습니다. 정말이지 차디차게 얼어붙은 땅에 그의 맨몸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해설자 1 : 솔트레이크시에서 연차대회를 개최하던 때였다. 브리감 영이 단 앞으로 나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브리감 영 :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856년 10월 5일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쯤은 손수레와 포장마차를 이끌고 이곳으로부터 약 700마일 떨어진 광야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도움이던지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들을 이곳까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은 구원의 사업이며 저들, 우리들의 형제를 구하여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에게 농우를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들은 이미 우리들의 영역 안에까지 와 있으며 우리들은 손을 뻗쳐 속히 저들을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저들에게 밀가루 열 두톤과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정 40명쯤은 보내야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 기쁨의 함성이 천지를 흔들었으며 억센 남자들도 햇볕에 그슬린 얼굴로 눈물이 하연없이 흘러 내렸으며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기쁨의 춤을 추었지요.

윌리엄 테이트 : 나는 대대가 도착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자 엘리자베스가 포장마차 대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들이 다시 재회하게 된 기쁨과 흥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에 겨울 추위가 혹독했고 또 예년에 비해서 빨리 왔으므로 내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포장마차대를 도우러가는 선발대에 자원해서 끼었습니다. 포장마차대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동안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 허탈한

감정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그곳에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런지? 내 아내는 살아있을 것인지?

그 해 10월 31일, 250개의 조가 각각 구조의 임무를 띄우고 보내졌습니다. 10월 20일, 처음으로 윌리의 포장마차대가 구조대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설자 1 : 다른 구조 대원들은 말틴 대대로 전진을 계속했다. 손수레 대대 대원들은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지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며칠을 더 머물러 있어야 했고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구조대가 첩첩이 쌓인 눈을 헤치고 그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이 희생된 후였고 구조된 사람의 수는 극히 적었다. 첫번 생존자들이 11월 30일에 솔트레이크에 도착하자 시온에 있던 성도들의 위로와 구호로도 저들의 아픔을 달랠 수는 없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보고 있는 도중 저들의 도착 소식이 전해졌다. 브리감 영은 즉각 회중을 해산시켰고 참된 복음의 간증을 전하면서 집회를 끝냈다.

브리감 영 : 저들이 도착하면 나는 저들이 분산되어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저들이 훌륭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갖춘 가정으로 각각 할당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 제 앞에서 있는 자매님과 다소라도 간호를 할 수 있는 이곳에 있지 않은 모든 자매님들이 저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음식을 준비해주고 합당하게 치료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 자매님들께서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저들이 도착하는 시간에 우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알뜰한 음식을 준비하시고 저들을 씻기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간에는 빵도 구워야 하고 감자도 구워내야 하고 푸딩을 만들어야 하고 우유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저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때와 장소에 알맞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시다.

해설자 2 : 그 다음에 교회 대관장님께서는 관리감독에게 도착하는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셨고 저들이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직접 대관장님 댁으로 오도록 지시하심으로써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제인 : 저의 부모님은 존 올로톤과 엘리스 올로톤 그리고 저의 언니는 플래이트 강변으로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날 저의 여동생마저 피로에 숨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올로톤 가의 단 하나의 생존자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한번 눈을 감은 채 시온의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가족이 잠시만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잠시 동안의 이별은 복음을 갖기 위한 값진 것이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교회가 참되기 때문입니다.

폴리 : 저의 발은 모두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형제와 자매들의 발도 모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지독했던 눈, 눈, 사방이 모두 둘러싸인 그 눈과 매섭게 몰아치는 와이오밍의 바람은 무서웠습니다. 우리들은 텐트를 치기 위한 막대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한 사람이 우리들의 캠프로 와서 브리감 영이 우리들을 위해 구조대를 보냈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합성을 올렸습니다. 저의 모친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산과 산이 연결된 어느 이름 모를 협곡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때 어머니의 연세는 마흔 셋이었습니다. 우리들은 1856년 12월 11일 밤에 그러니까 아홉 시 경에 솔트레이크에 도착한 맨 마지막 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 사람 네명 중 한 사람 끝은 모두 동상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은 포장마차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브리감 영이 저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분이 저의 형상을 보시고 저의 얼어붙은 발과 시체가 된 어머니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의 여동생이 어머님께 수의를 입혀드리고 있는 동안의 사가 저의 동상으로 영망이 된 발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 발의 치료가 끝나자 저들은 어머니의 영결식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땅에 묻히셨습니다.

나는 자주 우리가 영국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말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폴리의 어머니 : 폴리야, 나는 너희들이 아직 어렸을 때 시온으로 가고 싶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단 말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해설자 1 : 에드워드 말틴 대대는 1856년 7월 28일에 아이오와시를 출발했으며 그 때 대원은 모두 576명이었다. 그후 6달만에 135명의 희생자를 내고 포장마차 대는 1856년 11월 30일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 ㉔

# 정책과 프로그램

이 교회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교회 회원들로 하여금 교회가 가르치는 절차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것과 같은 많은 공식적인 지침 요강은 신권 공보라는 교회 공문을 통해서 이미 전달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대부분 신권 공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들 전체의 관심사가 될만한 것들을 뽑아서 간추렸습니다.

## 젊은이는 교회의 표준을 지켜야 함.

“교회의 젊은이들은 자주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활동이나, 단체 소풍이나 기타 모임에 소개를 받습니다. (소년단, 학교, 사회 단체 혹은 국가 기관 등등) 만약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만 되었다면 저들이 참가하는 모임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훌륭한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젊은이들에게 이제까지 저들이 교회에서 익혀온 표준과 절차가 비 종교 단체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일반 단체에서 주관한 모임에 자녀가 참석하게 될 경우 저들이 확고부동한 결의를 가지고 교회의 표준을 지킬 수 있도록 마땅히 충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신권공보

## 교재 내용에 충실해야 함.

교회 회원들은 “교회의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출판해서 배부한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여하한 철학적인 소견이나 정치적인 발동

음을 위한 개인적이거나 조직적인 선전 같은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라도 교회의 집회나 혹은 교회의 보조 조직을 이용해서 이상 말씀드린 여러가지 세상적인 책자를 연구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서적을 배부함으로써 예산을 모아들이는 일체 활동을 주관하지 못하며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만한 다른 행위를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신권 공보

## 최면술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는 금지됨

“여럿이 모여 최면술 시범을 갖는 다거나 혹은 이와 비슷한 정신 수양 연구 등등의 활동으로서 몇몇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을 권고하여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주관하거나 혹은 하도록 권고해서는 안 됩니다.”—신권공보

## 계보 사업에 있어서의 책임선.

“각각 자기 조상들의 계보를 탐구하며 직계 조상의 가족 계보선을 완성하며 신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보상의 확산사항을 계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교회 회원들이 수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교회 회원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땅히 신전 의식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교회 회원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특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인봉 의식을 받게 된다면 계보 사업의 책임 한계는 달라집니다.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거나 혹은 자녀를 양자로 맞아들이게 될 경우에 특별한 인봉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계보 사업을 위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며 변경된 책임의 범위를 계보 위원회에 연락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계보 위원회는 대판장단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신권공보

# 하나님의 약속

엘 에이치 오 스토브 씬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영체와 나약한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합당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육신의 몸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며 우리의 영도 자주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내적인 우리를 살찌게 하는데 있어서 정규적으로 명상하며 묵상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친히 읽거나 경험한 것, 그리고 기도했던 것,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 등등을 조용히 생각하고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영혼을 위한 양식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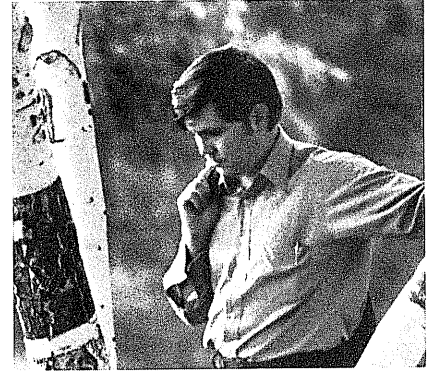
바쁜 일과 중에서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와 우리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며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자연의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내며,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며, 우리가 비롯된 거룩한 기원과 우리가 성취할 목표를 살피보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매일 매일 정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합당하게 먹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매일 매일 영적인 시간을 갖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매일 매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리가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약속의 장소는 이 세상의 갈등과 격리된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가까운 공원일 수도 있고 근처에 있는 다른 용도의 조용한 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숲속에 들어가 기도함으로써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만의 세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규적으로 우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런 시간을 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직장 이 끝난 바로 다음 시간을 써도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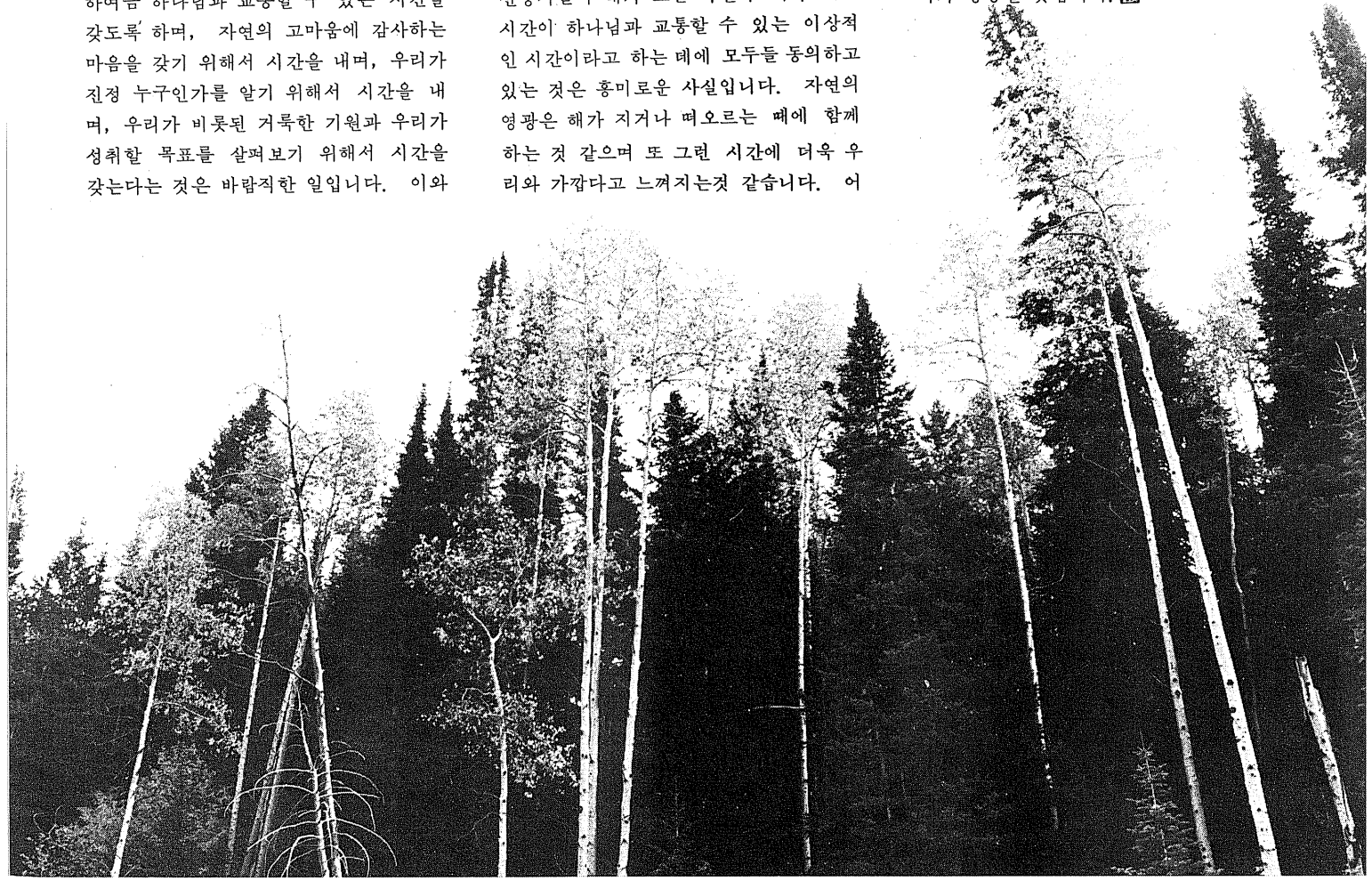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몇 개의 종교의 신봉자들이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데에 모두들 동의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연의 영광은 해가 지거나 떠오르는 때에 함께 하는 것 같으며 또 그런 시간에 더욱 우리와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췌든 정규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장소와 정규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가 모두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인류의 존속을 위한 양식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과연 자기의 구원을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개인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규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의 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먹인다면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 지문의 신비

던 어세이 저



**토**드는 봉투를 열고 작은 카드를 꺼냈다. 카드 전  
면에는 영국의 유명한 탐정 샬룩 홈즈와 같은  
옷을 입은 소년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힌트를 주지. 나는 네 친구  
다.”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 다만 엄지 손  
가락 지문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토드는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이 카드를 누가 나  
한테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탐정놀이 장난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  
했다.

토드는 탐정놀이 장난감 상자에서 돋보기를 꺼집어  
내어 카드에 찍힌 엄지 손가락 지문을 조사해 보았다.

“그게 뭐니?” 토드의 동생 앙드레가 물었다.

토드는 돋보기를 쥘쥘 치웠다. 그는 앙드레가 자  
기를 그만 괴롭혔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건 내게 온 편지야!” 토드는 대답했다.

“네게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지문을 조사하는 길밖에 없다고 토드는 자신에게 이  
야기했다.

자기에게 그런 카드를 보냈을만한 친구들의 이름을  
모두 적는 데에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어딜 가니?” 토드가 현관문 앞으로 탐정놀이 장난  
감 통을 들고 뛰어나가자 앙드레가 다시 물었다.

“아주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거야”

토드는 이것이 처음으로 맡게 되는 사건이었으며 잘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토드는 우선 친구  
토미로부터 시작해보겠다고 생각했다.

조금 이상스러운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  
으므로 토드는 쉽게 친구들의 지문을 받을 수가 있었  
다. 토드는 친구들에게 문제가 일단 해결되면 자기  
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비밀을 다 이야기하겠  
다고 약속했다.

집에 돌아오자 토드는 지문이 찍힌 종이를 테이블





“이건 톰의 지문이고, 이건 세안의 지문이고, 이진 피터의 지문이란 말야”

앙드레가 잉크묻은 종이를 만지는 동안 그의 손가락은 잉크로 온통 까맣게 되었다.

갑자기 토드는 일을 멈추고 동생을 내려보았다.

“잠깐만,” 토드는 잉크 패드를 집어내면서 이야기했다. “아니 한 친구쯤 내가 빼냈을지 모르겠어!”

토드는 재빨리 동생의 손을 잉크 패드에 문힌 다음 앙드레의 지문을 종이에 받았다. 앙드레는 토드가 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미소지었다.

토드는 돋보기를 꺼낼 필요까지 없었다. 비밀이 해결된 것이다. 자기의 어떤 동생이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단 말인가! ㉞

위에 넣어놓고 돋보기로 하나씩 조사했다.

“나 봐도 되니?” 앙드레가 물었다.

“볼테면 보렴. 그렇지만 나를 귀찮게 해서는 안 돼. 열심히 살펴야 한단 말이야!”

그러나 토드가 돋보기로 아무리 열심히 지문을 조사해 보아도 카드 뒷면에 찍힌 것과 같은 지문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는 더욱 궁금해졌다.

“형은 그 지문 찍어서 보낸게 아주 기가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앙드레가 물었다.

“기가 막힌 생각이고 말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카드를 보낸 사람이야말로 나하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것 같아서 더욱 재미있단 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보낸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토드는 우울했다. “어쨌든 친구들의 지문을 모두 조사했지만 그것과는 전혀 맞질 않거든.”

“정말이지 형?” 앙드레가 물었다.

“네가 보렴,” 토드가 앙드레에게 지문이 찍힌 종이를 건네주면서 대답했다. ㉟





# 심심풀이



## 점 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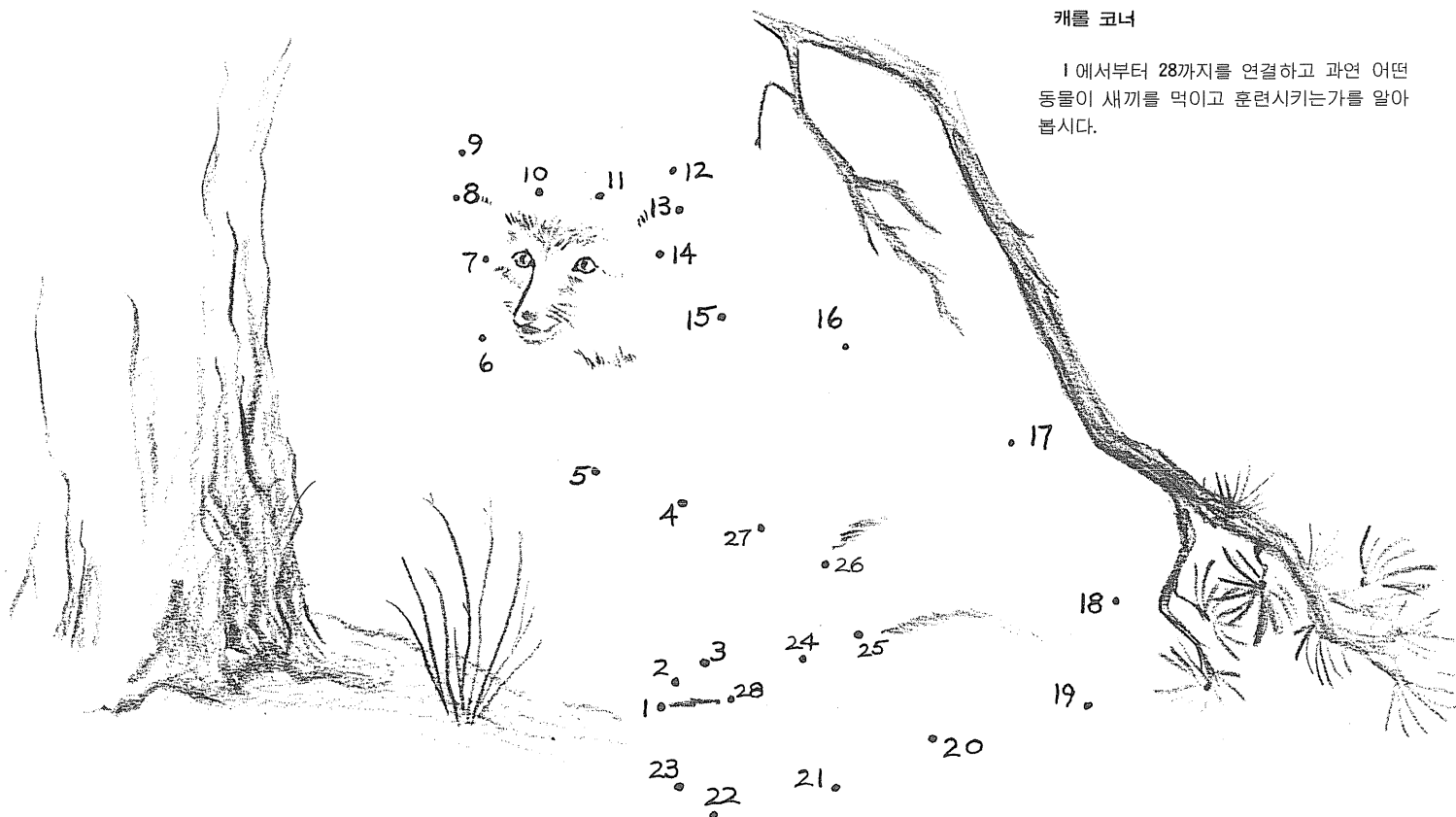
캐를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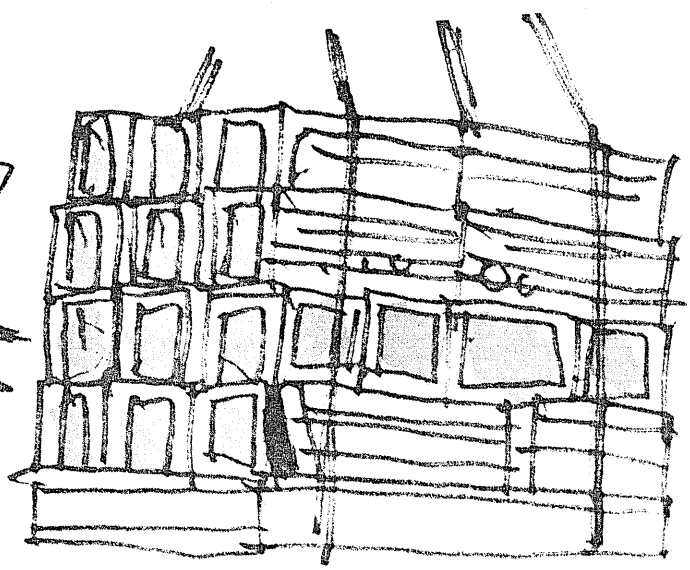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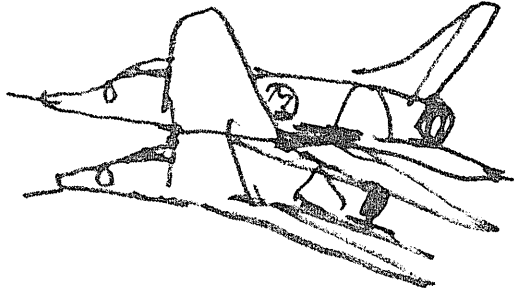
점을 차례로 이어서 튼튼하고 재미있게 생긴 개를 그려 보세요.

## 점 잇기

캐를 코너

1에서부터 28까지를 연결하고 과연 어떤 동물이 새끼를 먹고 훈련시키는가를 알아봅시다.





## 친구가 친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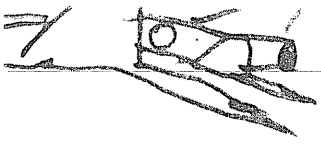
하트만 랙터 2세  
70인 장로 제일 정원회

수년 전에 나는 해군 항공 모함 "U. S. S. 필립핀 해"에 소속되어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 모함은 일단 항해의 길에 오르면 약 30일씩 바다에 머물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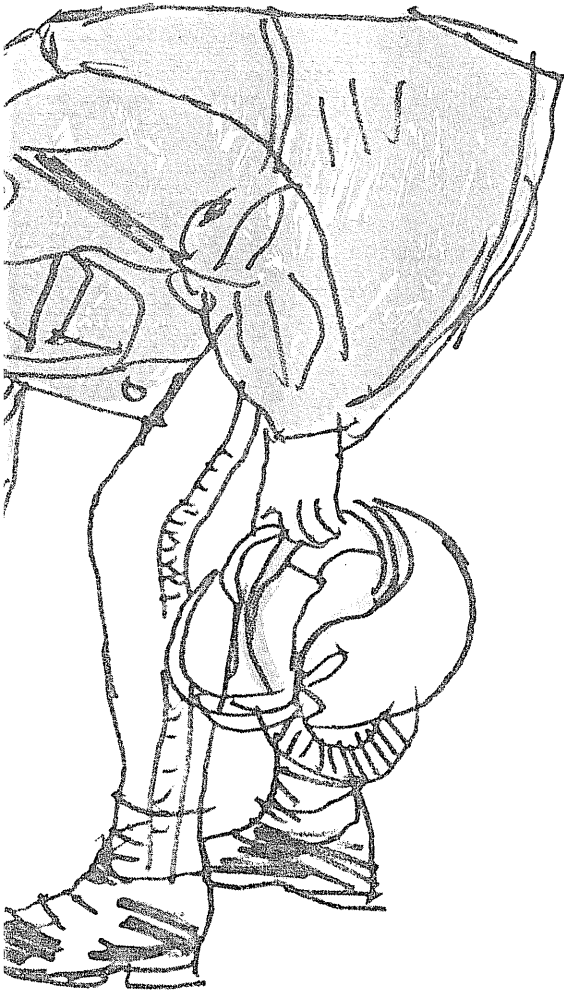
우리들의 보급품은 다른 배가 날라다 주었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는 수송선은 우리 배 곁으로 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항해를 계속 하면서 우리들에게 음식과 우편물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부속과 그리고 기타 보급품을 연결된 줄을 통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때로는 보급품을 담은 상자가 터져서 항공 모함 갑판에 흩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배 위를 지나는데 마칩 신선한 과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터진 오렌지 상자 사이로 싱싱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오렌지가 굴러내려 내 앞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곧장 조종사 대기실로 내려 갔습니다. 나의 동료 조종사들이 그날 보급선에서 방금 도착된 우편물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친구들은 모두 내가 들고 있는 오렌지를 보았습니다. 사실 항해하는 동안 싱싱한 과일을 배에서 얻는다는 일은 힘든 일이며 내가 들고 있는 오렌지가 저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는 사실





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저들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듯한 태도로 돌아서서 오렌지 껍질을 벗긴 다음 반쪽으로 나누어 오렌지 반에 몇개의 조각이 들어 있나를 세어보았습니다. 오렌지 조각을 세어보니 방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두쪽씩을 주기에 충분한 숫자였으므로 나는 그것을 두쪽씩 쪼개어 친구들에게 고루 나누어 줬고 친구는 내게 모두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어이, 오렌지 박스가 통채로 깨져서 온통 갑판으로 굴러다닌단 말야. 마루로 오렌지가 하나 가득이다!”

친구들은 모두 뛰어나갔습니다. 얼마후에 그들은 모두 자랑스럽게 오렌지를 움켜쥐고 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내가 저들에게 두쪽씩을 나누어준 대가로 내게 네쪽씩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준 오렌지를 다 받아보니 오렌지가 두개는 될만한 분량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간단한 복음의 원리를 배우게 된 기회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나는 결코 배가 넘는 상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오렌지를 저들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관대한 혹은 선한 일로해서 상을 받지 않게 되는 예는 극히 드문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전 11 : 1)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여러날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상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 40)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서로 친절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할 때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모든 것 아름답고 풍성뿐일세”(찬송가 27장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㉞

# 사랑스런 여왕 에스터

메리 엘렌 졸리저 필리스 루크그림

**바**사와 메대의 왕인 아하수어로 왕은 새로 왕비를 뽑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아름다운 처녀를 모이게 하고 한 사람씩 왕 앞으로 나오게 했다.

뽑혀 온 아름다운 처녀 중에는 모르드개의 질녀인 에스터라는 젊은 처녀가 있었으니 그는 그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이었다. 모르드개는 에스터에게 그녀가 자기와 친척이 된다고 하는 사실과 또 그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타일렸다. 에스터는 아저씨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 아저씨는 에스터의 부모가 돌아가신 이래 그녀를 그 때까지 양육해 주신 분이시다.

아하수어로 왕이 에스터를 보자 그는 그 아름다운 자태에 한 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의 왕비로 택하였다.

하루는 왕궁의 가장 높은 대신인 하만이 성문 앞에서 있는 모르드개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나라 백성들이 모두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모르드개는 그러한 것이 유대인의 관례나 법도에 어그러지는 일이었으므로 절을 하지 않았다. 원래 거만하고 허세가 센 하만은 모르드개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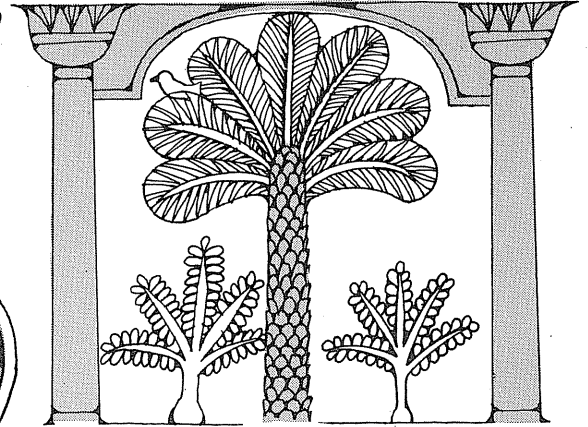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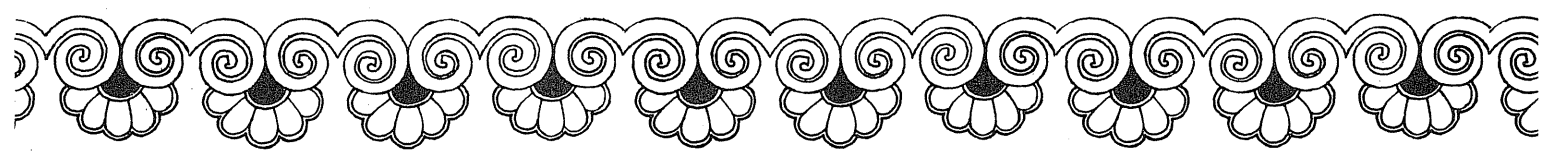
그리하여 하만은 왕에게 유대인들이 오직 자기들의 법도만을 지킬 뿐이므로 왕에게는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하만은 그 이유로 해서 모르드개와 모르드개를 따르는 백성들을 전멸하라는 명령을 얻었다.

이러한 무서운 계획을 미리 알게 된 모르드개는 에스터에게 왕의 명령을 철회하고 백성을 구하도록 간청하라고 부탁했다. 비록 왕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는 왕이 부르지 않을 경우 스스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 누구든지 이러한 법도를 어기면 왕이 친히 왕의 홀을 쥐어 주지 않으면 곧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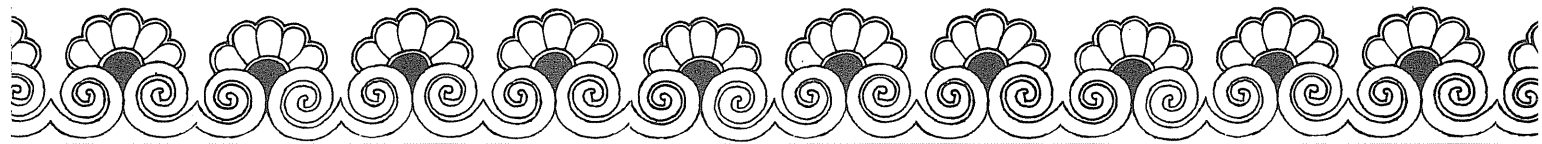
에스터 왕비는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행



1973년 7월호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에스터가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자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무슨 부탁이든지 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에스터는 왕에게 하만을 데리고 연회장에 나와달라고 전했다.

연회장에서 에스터는 왕에게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일로 해서 간악한 하만의 죄상은 드러났고 유대인들을 곤궁에 빠뜨릴려고 그가 친히 만든 함정에 스스로의 운명을 맡기게 된 것이다.



# 숨겨진 그림 찾기

쥬디 카페너 그림



야구선수, 울통에서 뛰어나오는 개구리, 조그만 낡은 자동차, 토끼, 자전거, 문어, 양 세마리,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가 이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찾아 보시겠습니까?

어떤 책을 열어 보든지, 어리석게 유혹에 빠짐으로써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의 예를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그러한 참담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은 드물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떻게 하면 유혹에 대항하여 우리의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대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이러하다—환각제를 시험해 보려 한다든지 걱정을 다스리지 않고 방임해 둔다든지 도덕적으로 방종한 생활을 한다든지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것 등등이다.

1. 유혹의 근원과 그 유혹의 심각함을 깨닫는다.

우리는 사탄이 악의 근원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모든 간악한 유혹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 길이 없다. 야고보는 이에 관하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약1:14)라 하였다.

헨리 와드 비처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하여 유혹에 대한 그의 소견을 분명히 밝혔다. “유혹에 이끌리겠다는 의사가 없이 유혹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악마가 참으로 강력하게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강력하게 유혹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라든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분명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두 한결같은 형태로 제시되는 것도 아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르고 들어오는 까닭에 우리는 자주 그것의 선악을 구별하기가 힘들게 된다. 존 웨슬리<sup>2</sup>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데 대한 다음과 같은 충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다.

“너는 기쁨의 합당성과 불합당성을 판단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표준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무엇이든 너의 이성을 흐리게 하고 양심의 부드러운 마음을 무디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하고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너의 목마름을 제거하며, 너의 육체의 힘이 너의 정신의 힘을 짓누르게 하거든 그러한 것이 네게는 간악한 것이니라. 이 표준으로 너는 유혹이 네게 얼마나 집요하게 달려들던가 혹은 유혹이 네게 얼마나 강력한 호소력으로 임하든지 간에 악을 알아내기 바란다.”

2. 간증을 기른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새로운 교회의 개종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임하는 모습을 관찰했는가? 저들은 공공연하게 간악한 것에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뜻을 피력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종자간의 이런 열의는 차츰 식어지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러한 열의를 한번도 갖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다. 처음 간증을 얻어서 늘 그것이 빛을 발하도록 노력하는 데에 열의가 놓여져 있는 것 같다.

사람이 간증을 갖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간추려 본다면 다음에 열거하는 다섯개의 범주 안에 포함되리라 본다.

1. 하나님의 참된 성품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회부된 복음의 전반에 관한 기초 원리를 공부한다.

1. 헨리 와드 비처 (1813-1887) 미국 선교 목사 및 편집인  
2. 존 웨슬리 (1703-1791) 영국 감리교의 시조

# 유혹은 자기가 되려



# 행복

우리에게 젊음과  
건강과 활력이 있는  
동안 우리의 생애를  
온갖 아름다운 것으  
로 채우자





- ㄴ. 물몬경을 읽는다.
- ㄷ. 물몬경의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또한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 ㄹ.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교회의 부름과 교회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한다.
- ㅁ. 회개하고 제명을 지킨다.

간증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의 순서를 정리해 주며 우리가 악마의 힘에 대항해서 신한 싸움(딤후 6:12참조)을 싸워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준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강한 간증만이 전부를 위한 대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더라도 유혹을 받는다. 강한 간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 3. 금식하고 기도한다.

악마의 권세에 관하여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경전의 가르침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교성 31:12)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 구세주께서는 이 가르침의 의의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기셨으므로 미대륙에 있는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신 후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두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니삼 18:15, 18)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식의 기도, 말하자면 잠시 생각하고 나서 하는 정도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기도가 용납되려면 합당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 토마스 쉐커는 이에 관하여 그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뛰어 들어 가는 것은 월월 타오르는 불길 속에 손가락을 더밀면서 자기 손가락이 불에 데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진실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들어라. 인간의 약점을 아시며 유혹에 빠진 자를 견져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주,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희 변호인이 말씀하시느니라”(교성 62:1)하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들어 왔다.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을 권고하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도록 지시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가르치라.”(앨 37:3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늘 주의 제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는 언제라도 성신이 동반할 수 있는 (교성 121:46 참조)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홀로 임하여서는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에 임하여서도 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권고와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그러한 사람은 마침내 음침한 느낌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죄를 수반하는 요소인 깨끗한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까지도 식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영의 도움을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권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 왔다.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영혼의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선과 악을 쉽게 구별하게 될 것이다.

### 4.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교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고 영원한 승을 향해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하여 더욱 확실한 확증을 얻게 될 것이다.

단순히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책을 맡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만족감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얻는 기쁨으로 우리는 선동적인 죄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 없게 지키고...”(교성 59:9)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다. 이 말씀의 뜻 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유혹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식일이란 세상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우리가 예측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는 날이다. 이때 중의 하루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영적인 건전지를 다시 충전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신 것이다.

### 5. 유익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를 가지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주변의 여건으로 해서 야기되는 많은 환경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는 외형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 관한 문제라든가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 본다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환경으로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일반 문제에 연결된 것이다. 우리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해서 쉽게 우리의 경제 자세를 허물 수는 없는 것이다.

얼마 전에, 바에서 일을 하므로 그곳에서 일을 계속한다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리의 권고를 거부했던 젊은이를 방문하여 가르침 일이 있었다.

그는 마침내 교회 모임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였다. 교회 회원들이 유타에서 주류 판매를 허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공공연하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쉽게 헤어지기 어려운 세상적인 그물에 말려 들어 가고 만 것이다.

우리를 깊은 함정으로 끌어 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태를 더욱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유대를 나누기로 결정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직업을 바꾸기도 해야 하며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며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보다 더 어려운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겠는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질문을 던져 본다면 나는 내가 믿는 참된 복음의 원리를 침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원리대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겠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허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에 이를 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오염된 공기보다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 6. 우리의 마음을 합당한 창고로 쓰도록 한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비록 우리가 자고 있는 때라도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작용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소화 기관과 비슷하다. 우리의 신체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향상되고 반대로 나쁜 음식을 먹으면 해를 얻게 된다.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니이 32:3)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향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덕스러움보다 더 훌륭한 자료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교 121:45)

경전과 교회의 공식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은 매일 매일을 생활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을 바르게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덕스러움을 쌓아 둔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울러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절차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잠을 자는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경전을 읽든가 우리의 정신을 높여 줄 수 있는 책을 읽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꿈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이라도 선한 것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 나서 느끼게 되는 감회가 밤늦도록 텔레비를 본다가 영화를 보다가 그대로 쓰러져 자는 때와는 현저하게 다를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합당치 못한 영화라던가 서적을 탐닉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의로운 것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는 많은 것을 쌓아두는 창고가 되겠는가? 우리가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거나 남의 재물을 탐내는 마음을 갖는다면, 가령 환각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여 본다가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도덕적인 표준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것을 위한 창고가 되고 말 것이다. 아울러 습관적으로 여자를 훑쳐 보는 사람들은 머리가 늘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친과 함께 생명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던 니파이는 더러움을 상징했던 강물에 대한 아버지의 소견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부친께서 다른 일에 정신을 쏟으신 고로 그 물의 더러움을 보시지 못하였다.” (니일 15:27) 우리에게 참으로 위대한 교훈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한 것에 “정신을 쏟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7. 값지고 기억할 만한 경험을 쌓는다.

미국 네브라스카주 링컨에 있는 학교에는 아름다운 비문이 적혀 있다. “우리에게 젊음과 건강과 활력 있는 동안 우리의 생애를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체험한 훌륭한 과거의 선행보다 더욱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모두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하는 때가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가지로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을 부단히 계속한다면 (물론 그 안에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합당치 않은 것에 허비할 만한 시간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스티얼링 더블류 실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이를 점점 먹음에 따라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도 그 수효에 있어서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듣고 읽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거의 다 우리를 아

래로 끌어 내리려는 유혹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보면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좇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그 마음의 결정에 따라 선악간의 판결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악의 유혹에 자신을 맡겨 놓은 채 그냥 내버려 두므로 위로 향하려고 하는 유혹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상 가장 위험한 유혹의 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 되는 유혹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극히 유혹에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문화의 유혹, 행복의 유혹, 명예의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 등등을 열심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일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요구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유혹이란 것을 두고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70년 6월호, 45페이지).

한번은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가 다시 새 생활을 정비한 사람들의 간증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발표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문제 하나는 자기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경험”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 간증을 나누며 이제까지는 갖지 못했던 자기들을 만족스럽게 하는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발돋움하여 도달하는 그 이상의 위치에서는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 8. 악을 예방하는 도구로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 사랑의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을 포용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황금률이라 하셨으며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하셨다. (마 22:30참조) 우리가 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행한다고 하면 복음의 온갖 율례를 다 행하는 것이 된다.

데이비드 던은 그의 저서 “자신을 버리라”를 통하여 간단한 친절을 베풀으로써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기쁨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사람이 자기를 진정한 뜻에서 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집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행하는 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되 그의 창의력과 관용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이웃으로 새로 이사온 사람들에게 이웃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조화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주도록 시간을 낸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되 특히 그의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칭찬해 주도록 한다.

—주변에 살고 있는 신체 장애자나 지진아를 위해서 선행해서 일해 준다.

우리의 마음에 불건전하거나 간악한 생각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을 만큼 우리를 바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셨다. “...사랑은 온갖 죄를 예방하나니.” (벤전 4:8 영감역) 참으로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생활 유대를 지켜 나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허물어 뜨리려 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 소개되는 경전에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한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소개된다. 모로나이는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함으로써 이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모로 7:48) 그렇다고 하면 악과 타협하지 않는 곳에 우리를 정주시키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얻는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다.

### 9.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배운다.

실제로 사람이 유혹을 당하고 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물론 앞에 언급한 모든 것이 이러한 때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때에는 앞에 언급한 것보다 더 절실한 도움이 요청된다.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위를 산만케 하는 방해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방해자는 우리가 유혹에 이끌려 갈 때 유혹을 좇는 우리의 마음을 산만케 하여 동시에 우리를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신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말일 성도 젊은이가 교회 찬송가를 충분히 배워서 마음이 유혹으로 흔들릴 때 노래 곡조를 부른다는가 가사를 붙여 노래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셨다. 원래 사람은 한번에 한 가지 밖에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은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을 정리하는 유용한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져 있을 때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내 줄 수 있는 철저한 방해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열을 다해서 참을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운동을 하기도 한다. 스키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농구 경기에서 런닝 슈트를 시도하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생각을 품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물론 가장 강력한 방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동반하는 금식이 될 수 있다.

안전 운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철저한 예방 운전”이라는 말을 안전 운전 전문가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도로 상에서 자기에게 까지 화를 미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차량에 대한 예방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단 위험한 일이 발생한 다음에 그것에 대응해서 행동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조치이다. 유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의롭게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으면 성신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도와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의 주변을 잘 정리해서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장차 할 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건전한 상태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 유혹에 처하였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을 준비하여야 한다.

### 10. 주님이 명하신 지도자를 따른다.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다섯 번째의 계명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이 말씀은 특

히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함께 살 수 있는 동안 지켜져야 할 계명으로 안다. 자기가 부모가 되기 전에 자기의 부모가 자기에게 주신 권고나 지혜의 말씀을 감사하기는 참 어렵다. 이제 이 계명의 말씀을 이곳에 적용해 본다면 부모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른다는 것이 현명한 일임이 분명하며 특별히 남녀 교제라든가 기타 개인의 몸가짐, 혹은 정숙한 생활을 위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를 관리하는 신권 지도자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 밖에도 신학 연구원 중등부 담당 교사라든가 보조 조직의 교사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심한 유혹의 위협을 받을 때에는 특별히 소속 와드의 감독이나 소속 지부의 지부장께 모든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감독이나 지부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관사며 여러분이 유혹을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대리자로 명하신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가지 대부분의 사람이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는 자기를 낳아 주신 아버지께 필요한 때 축복을 요청하여 받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지 못할 만큼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 교사, 감독이나 지부장, 스테이크의 축복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축복해 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 계신 예언자—교회의 대관장 및 모든 관리 역원—의 말씀이 교회의 연차 대회나 어느 곳에서 전해지더라도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들의 권고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적인 힘과 행복을 보상으로 얻게 될 것이다.

##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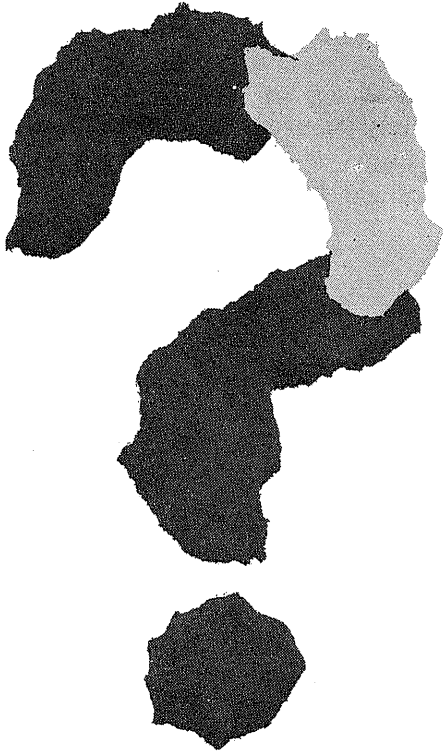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유혹의 시기에 살고 있다. 20세기를 사는 성도들이 당면해야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매스킵은 크게 떠들고 있다. “유혹을 피하는 길은 오직 그 유혹에 뛰어 드는 길 밖에 없다”라고 한 오스카 와일드의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도 많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철학이 우리의 지상 생활의 목표를 혼란시키고 있음을 잘 안다. 우리가 생에서 주어지는 유혹을 부딪쳐서 극복하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속된 모든 것을 극복하여 선지자 요셉 스미스가 설명하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인 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접근할수록 그의 보는 눈은 점점 밝아지며 기쁨은 더욱 커지며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생에서 부딪치게 되는 모든 간악한 것들을 극복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품고 있던 인간의 욕망은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51페이지) [E]

3. 오스카 와일드(1854~1900) 영국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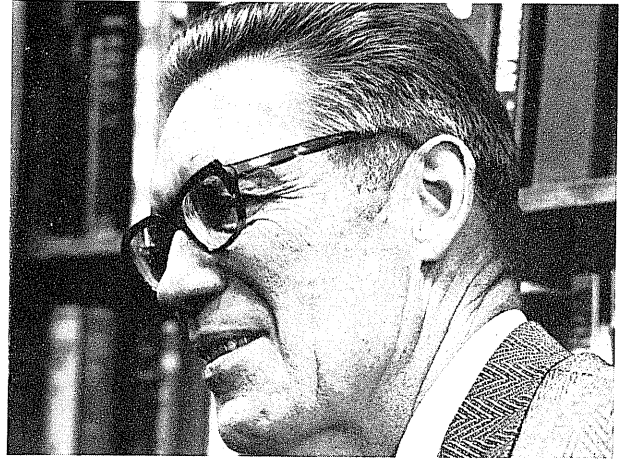
# 질문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총관리 역원도 인간인가?”**

생각컨대 이러한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이러한 질문은 교회가 있었던 처음부터 사람들이 갖지 않았었다 생각한다. 이러한 의문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또한 거룩한 부름을 받고 일하게 된 형제님들에 대한 존경으로 해서 야기되는 것 같다.



대답 맥콩기 장로

나는 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시절의 교회 역사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한 분이셨던 히버 시 킴블 형제님이 홀로 사는 나이 많은 자매님 댁에 숙식을 요청하셨던 때가 있었다. 그 자매님은 그에게 빵과 밀크와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가 방에 들어 가자 그 자매님은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자, 이번에는 한번 알아 봐야지. (이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인 바 ‘총관리 역원도 인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었다) 정말이지 이번 만은 주님의 사도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 봐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의 문이 닫히자 그 자매님은 조용히 층계를 올라가 온통 귀에다 신경을 모으고 엿듣기 시작했다. 자매님은 킴블 형제님이 침대에 앉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짹씩 구두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또 그가 침대에 기대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 주여 히버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는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물론 이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겠으며 우리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주제는 대개의 많은 사람이 그릇된 관념으로 대하는 주제이기도 한 것이다. 요셉 스미스 시절에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 저는 동쪽에서 오신 분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제 이름을 듣자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 보이시고 자기의 뜻을 전달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면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에 약간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일라이어스가 우리와 같은 감정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으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늘이 문을 닫고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잊었던 모양입니다. 그 뿐입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하늘이 비를 내려 땅에 있는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인간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와 더불어 교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두운 현실이며 이 시대의 무지이기도 한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89페이지)

다음과 같은 말은 대체로 세상의 견해이다: “만약 세상에 예언자라는 게 정말 있다면 너무 고상하고 영광에 싸인 사람이어서 보통 우리와 다를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광야에서 들청과 꿀을 먹으며 살았던 침례 요한을 연상할 것이며 “사람들이 야인이 나타났다...하니라”(모세서 6:38)라고 이야기한 에녹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저 예언자나 총 관리 역원이 맡은 직책의 거룩함과 존엄성과 영광에 관해서만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직책에 임한 사람에게까지 거룩함과 존엄과 영광을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쉬운 방법으로 풀이해 보았으면 좋겠다. “총 관리 역원도 인간인가?”라고 하는 가설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감독도 인간입니까?”라고 한 번 바꾸어 보기로 하자. 자, 그렇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도 인간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연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이다. 물론 우리가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의 약점과 공통점과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분명한 인간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이들 총 관리 역원과 감독과 선교사—이 점에 있어서는 교회의 모든 회원을 포함해도 좋다—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나 합당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세상의 인간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인간이라고 하는 뜻을 세속적인 쾌락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한다면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인간”일 수는 없다.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마땅히 세상적인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물론경의 말씀을 살펴 보면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범속한 인간의 때를 버리고 성도로 거듭 난다고 되어 있다. (모 3:19)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합당하게 개발시키고 주어진 표준에 좇아 합당하게 살기만 한다면 세상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속된 쾌락을 좇아 사는 뜻에서의 인간의 굴레를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의 생명을 지니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산다고 하는 점에서 역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이다.

나의 저서 “물론 교리”라고 하는 책자에 나는 “총 관리 역원”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일이 있다. “총 관리 역원에게는 한 가지 일이나 혹은 다른 여러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 또한 이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언제나 그의 성도 및 성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 주시는 율례에 좇아 살아야 한다. 물론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높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교회에서의 이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저들 개개인은 교회 안에 있는 저들의 다른 형제들과 같은 인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훌륭한 훈련을 받기만 한다면—그리고 만일 부름이 주어져서 지지되고 성별된다면—저들은 모두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물론 교리 북크래프트사, 66년판, 309페이지)

이 책에 “예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비록 예언자로서 영광과 위대함을 지니고는 있으나 저들도 평범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미숙함을 지니고 유한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저들에게도 개인으로의 의견이 있고 편견이 있으며 여러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부딪친 문제를 영감을 받지 않은 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도 하는 것이다. 요셉 스미스의 기록에 보면 ‘그는 미시간주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만날 기회를 가졌었고 그들은 “예언자라면 언제나 예언자”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저들에게 예언자는 예언자의 일을 수행할 때만 예언자라고 대답했다’라고 한 일이 있다.”(같은 책, 608페이지)

이와 같이 비록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나 판단에 있어서 틀리는 수가 있으며 특히 저들이 영의 영감을 받지 않을 때에는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다. 영감으로 정리된 성경 구절이나 말씀은 합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상 바울은 가장 완벽한 신학자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느낌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자기의 견해를 그의 서한에 기록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극히 현명하고 신중한 그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는 오직 나의 생각이니라.” 그가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러하시니라”라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바울의 견해나 그 개인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땅히 그래야 할만큼 완

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선지자는 인간이며 저들이 영의 영감으로 활동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며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인간인 것이다. 때로는 이 분들의 지혜와 판단이 지극히 훌륭하여 불사 불멸의 사람들과 같을 때도 있으나 저들이 영감을 받지 않는다면 지시의 영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교회에 있는 많은 평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범하게 된다.

우리는 총 관리 역원이 말씀하실 때 저들이 영의 영감으로 이야기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께 요셉 스미스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무엇이든지 계시하실 때에는 적어도 십이사도에게 계시하실 것이며 교회의 누구라도 그 계시의 능력을 받을 능력이 있는 맨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계시하실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9페이지 참조)

설명이 필요없는 완전 무결한 대답이다. 이와 똑같은 교리를 바울이 설교하셨다. “너희는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고전 14 : 31)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고전 14 : 39) 교회의 모든 성도와 또 교회 전체가 계시를 받아 마땅하다. 계시란 선교사라든가 혹은 감독과 같은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이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계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다.

브로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의회

### “사람이 어떻게 점점 더 높은 신권을 받습니까?”

이 질문은 지극히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 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사람이 합당하고 나이를 더해감에 따라 한 직책에서 다른 직책으로 말하자면 장로에서부터 칠십인이 되고 대제사가 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교회 조직의 모임에서 벨기세택 신권 반차 가운데에서의 다른 직책에 성임되도록 회중이 지지해 두면 그 신권으로 “승진”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점진과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후에는 더 높은 신권의 직책에 있는 권능을 가진 자들이 저들을 성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변경은 조금 덜 중요한 직책에서 더 중요한 직책으로 전속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승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새롭고 다른 임무

를 맡고 새로운 부름을 받았다고 새로운 신권의 성임을 받았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에 관한 신권의 모든 정책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져 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어떠한 직책도 신권 그 자체의 힘에 보탬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모든 직책이 신권으로부터 권세와 덕과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권의 형제들이 이 원리를 절실하게 깨달아 정리한다면 교회의 관리와 기능에 있어서 현재 교회 내에 존재하는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는 질문은 70인과 대제사 중 어느 쪽이 높은 부름이냐—대제사냐, 칠십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두 직책이 각각 어느 직책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덜 중요하다고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름의 연결은 각각 다르게 정리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신권의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장로를 제외하고는 벨기세택 신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면 그 장로는 하나님의 영의 영감과 전능하신 분의 지시로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마땅히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벨기세택 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며 장래일의 직책을 받은 신권 소유자가 교회에 남아 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신권의 반차를 좇아 행해야 되며 각각 그 신권의 반차가 지시하는 대로 의식과 성임을 집행하고 선지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확립된 절차에 좇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 교리 148페이지)\*

“교회에는 다른 역원이 있으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각 신권의 직책마다 각각 부여된 임무가 특이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직책의 중요함과 덜 중요함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신권 직책의 변경은 승진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복음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처럼 교훈에 교훈을 더해가는 것이며 신권 즉 반차로서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고 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더 많은 영적인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신권의 직책은 어떤 것이든 다 벨기세택 신권의 부속 직분인 것입니다. (교성 84 : 29, 30)

제이 앤더슨  
이스트 밀크리크 스테이크

\* 복음 교리, 1970—71년도 대신권반 교재, 1권, 208페이지 참조

“합당한 결혼 상대자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답 커티스 장로

나는 이 질문을 둘로 나누어 답하고자 합니다.

1. 요셉 스미스가 번역하는 것을 보고 올리버 카우드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번역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일단 “허락”을 받고 나서 도저히 번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올리버가 얼마나 낙심했으리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답의 말씀은 교리와 성약 9편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줄 느끼리라”(교성 9:7-8)

너무도 많은 사람이 다만 자기들이 주님께 간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대답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깊이 연구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것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렇게 한 연후에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다는 뜻이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혹 우리가 동반자를 구한다든지 혹은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2.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로 간구했고 제가 택한 동반자가 합당한 저의 동반자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는 개개인에게 주어질 특권, 즉 합당한 동반자를 맞아들인 일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연결된 결혼이 성공을 거두도록 필요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빈번히 쓰인 글귀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결혼한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결혼을 했고 저들의 결혼 생활에 충실하게 임하였으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주님께 우리가 합당한 여자 동반자 혹은 남자 동반자를 발견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고 묻지 말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와 주십시오고 간구하십시오. 그러한 연후에 상대자의 취미와 기호와 개성과 장점과 약점 등을 자신의 것과 비교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뒤로 물러 서서 과연 함께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 함께 일하고 슬픔과 행복을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혹 상대자가 바로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을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를 자랑스러운 아빠로 받아 들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그가 신권을 소유한 가장으로서 가족을 인도하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리키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해의 영광의 왕국에까지 인도할 수 있을지요?

과연 여러분이 택한 자매는 신권을 소유한 가장으로서의 여러분의 의로운 노력을 지지하는 훌륭한 어머니와 부인이 될 수 있습니까?

결혼이란 끝나지 않은 영원한 증계의 첫 문을 연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끝없는 그 발전의 증계를 전진해 갈 때 따라 여러분은 더욱 굳건해지며 증계는 오르기에 더욱 쉬워질 것이니 이는 서로 서로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린지 알 커티스 의학 박사

웨버 주립대학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여러분이라면 내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토록 훌륭한 발전을 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를 알고 계신지 궁금해 하십니다. 또 여러분은 자주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될 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주님보다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시간에 교회에서 자주 전한 바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나이보다 나이를 더 먹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이야기는 제 생애의 한 단편이며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스테이크에서 여러 선교부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의 감회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농장을 하나 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농장이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나는 농장으로 나아가 전포도 나무 숲을 보았습니다. 키가 6척 정도는 자라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모두 훌륭한 재목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무에는 꽃도 피지 않았고 전포도 열매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로 가기 전에 나는 솔트레이크에 있는 농장에서 자랐으며 그때에 내가 본 전포도 나무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 자르는 가위를 가지고 나와 줄기를 치고 가지들 쳐내고 해서 마침내는 잡다한 나무가지들이 전부 잘라지고 앙상하게 즐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먼동이 터 오는 아침 나무가지 위에 빛나는 수액인 반짝거리는 물방울이 눈

물 같다고 생각했으며 정말 나는 전포도 나무들이 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참 단순하며 (아직도 단순한 것을 뛰어 넘지 못했습니다만) 친진난만해서 나무를 올려다 보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나는 그 전포도 나무가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놀랍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나는 적어도 농장 담장 안에 있는 다른 과일 나무나 그늘을 드리는데 다른 나무만큼 크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이게 웬니까. 당신이 나를 온통 잘라 냈군요.” 뜰에 있는 나무들이 온통 나를 내려다 보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가 쌓아 온 성장을 송두리채 잘라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이곳 정원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전포도 나무가 내게 들려 준 이야기가 그러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의 뜻을 곰곰히 되씹어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봐. 전포도 나무야. 나는 이곳 정원사고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난 네가 과일 나무가 되는 것,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걸 바라지 않고 그늘을 드리는데 나무가 되는 걸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전포도 나무이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전포도 나무로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고, 정원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껴 주셔서 이렇게 모두 가지를 쳐 주시고 나를 잘라 낸 만

큼 이렇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정원사님” 그렇게 이야기할거다.

해가 바뀌고 그리고 저는 영국으로 가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군의 지휘관으로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빨리 진급했고 영국군 야전 사령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장군이 될 기회도 있었습니다. 시험도 모두 보았고 그리고 우선 순위도 높았습니다. 내 위에는 한 사람이 있었고 실년여를 두고 나는 영국군 장교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만만했었습니다. 나보다 앞 서열에 있던 그 사람은 전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마침내 런던으로부터 전보를 받았습니다. 전보 내용은 “내일 아침 오전 10시까지 내 사무실로 출두하라”고 되어 있었고 당시 전 캐나다군을 지휘하는 터너 장군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전속 부관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장구를 모두 닦아 빛이 나게 해 놓도록 부탁했고 내 군모와 장화와 일체의 군복 손질을 훌륭하게 해 두고 내가 이제 되려고 하는 장군의 품위를 찾아 볼 수 있도록 단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속 부관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나는 마침내 런던으로 갔습니다. 나는 장군의 사무실로 정중하게 걸어들어가 그에게 경례를 부쳤습니다. 장군은 내게 군인상관 특유의 “이 버리지 같은 놈아 꺼져”라고 하는 태도로 답례를 했습니다. “자, 앉게 브라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나는 자네를 임명할 수가 없게 되었네, 물론 자네 자격은 훌륭하다네. 필요한 모든 시험도 다 합격했고 그리고 순위도 다 되었네. 그리고

1973년 7월호

# 건포도 나무

휴 비 브라운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할 그림






자네는 그동안 훌륭한 장교였지만 자네를 지금 임명할 수가 없네. 자네는 지금 카나다로 돌아가 훈련 장교 직책을 맡아야 하고 수송관을 맡아야 하겠네. 우리는 만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하겠네.” 십년 동안이나 기도로 간구하며 소망하던 장군으로의 진급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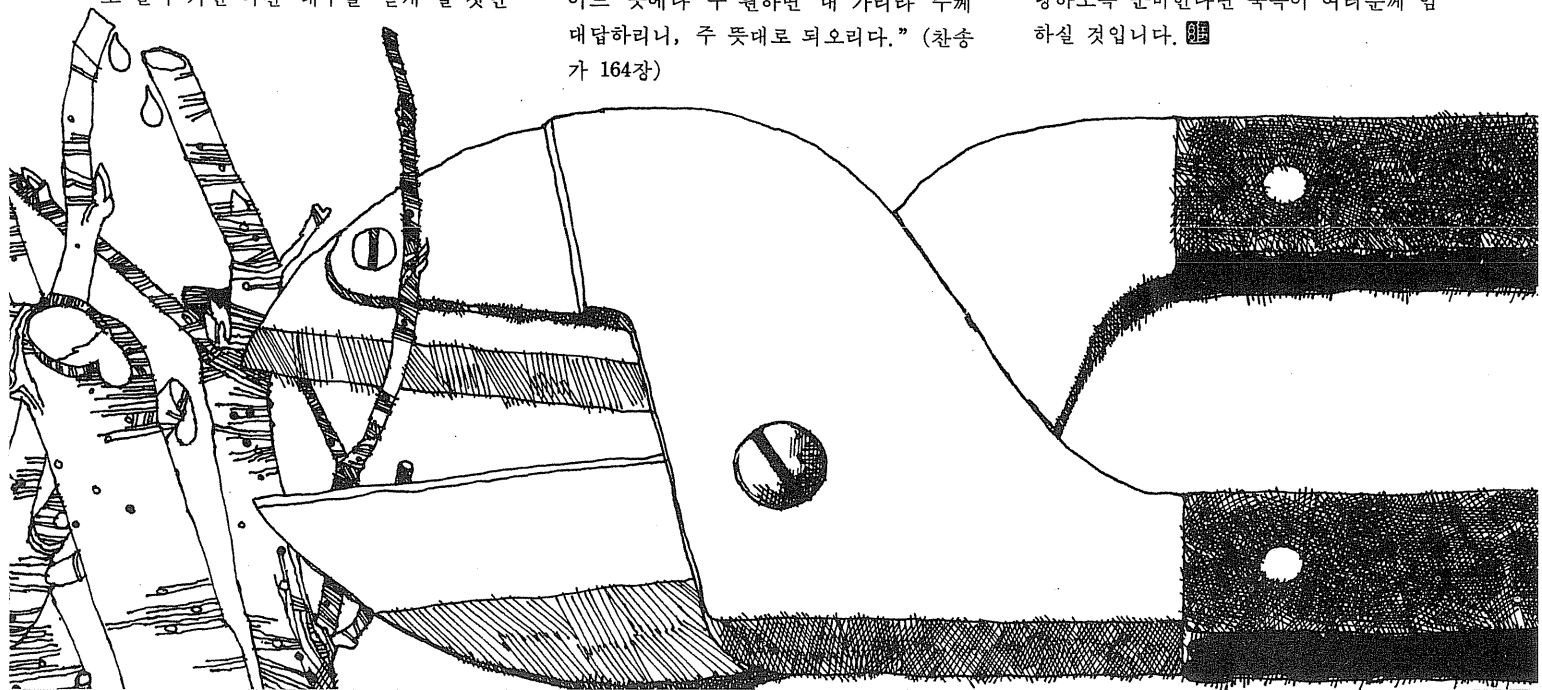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장군은 전화를 받기 위해 다른 방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고 나는 선 채로 장군의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는 내 개인의 이력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력서 맨 하단에 큰 글자로 “이 사람은 물몬인”이라고 써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물몬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고 나는 내가 왜 임명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는 물몬으로서 군인 최고의 계급에까지 진급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장군이 돌아 와서 “자, 임무는 끝났네, 브라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 경례를 했지만 그러나 맥빠진 경례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약 5백리 길이나 되는 고향으로 향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는 허탈감을 느꼈고 그리고 입맛은 썩습니다. 기차 바퀴가 소리를 낼 때마다 덜렁거리는 그 소리는 “너는 실패했어, 너는 이제 집에 돌아 가면 비겁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질거다. 너는 모든 물몬 청년들 군에 입대시켰거든. 그리고 너는 집을 몰래 빠져 나갔던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본래의 친막으로 돌아 가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

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모자를 접어서 아무렇게나 집어 팽개치고 갈색 허리끈도 아무렇게나 집어 팽개쳤습니다. 나는 팔장을 낀 채 하염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 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메사에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제가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게을리 해서 버려둔 것은 없습니다.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나는 침통했습니다. 나는 그때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주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나 자신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정원사일세. 나는 자네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네.” 침통했던 내 마음은 가라 앉았습니다. 나는 집어 팽개친 군 의투를 붙들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불경했고 침통했던 내 행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빌었습니다. 내 막사에 붙은 다른 친막에서 매주 화요일 밤이면 의례 그랬듯이 물몬의 젊은 군인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는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룻 바닥에 그냥 앉아서 상호향상회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나는 죄 사함을 위해서 간구했고 저들의 노래 소리는 귀에 분명히 들려 왔습니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높은 산 바다나 전쟁터 아닐지 난 모르나, 내 모르는 좁은 길 가라는 주 음성 내게 들릴 때,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 오리다 대답하리 산 넘어나 바다나 꿈은 길 어느 곳이나 주 원하면 내 가리라 주께 대답하리니, 주 뜻대로 되오리다.” (찬송가 164장)

내가 다시 일어 섰을 때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오십 년이 지난 지금 난 그를 올려다 보며 “감사합니다. 나를 잘라 주신 정원사님, 나를 잘라 줄 만큼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해 줄 만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때 내가 장군이 되지 않은 것이 잘 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장군이 되었더라면 서부 카나다를 다스리는 지휘관으로서 평생을 넉넉한 월급으로 살며 훌륭한 곳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딸 여섯과 아들 둘을 군대 막사에서 길렀을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저들은 모두 비회원들과 교회 밖에서 결혼을 했을 것이고 아마 나는 실제로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별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택하여 살았을 경우보다 더욱 훌륭한 것을 쌓게 해주셨음을 압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경험을 해야 할 사람이 많을 것 같기에 여러 번 되풀이해서 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번 시련과 고난에 부딪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마땅히 쟁취해야 할 것을 쟁취해서 갖지 못할 경우 “하나님이 이곳에 정원사로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한다면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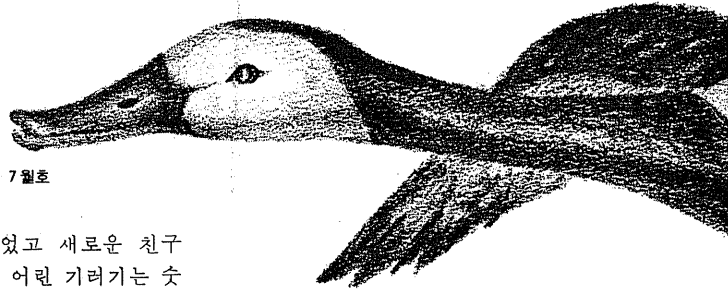


# 기러기의 비유

마이클 디 팔머  
랄프 레이놀드 그림



1973년 7월호



**옛** 날 옛날에 어린 기러기가 한 마리 살았는데 매년 아빠 기러기를 따라 남쪽으로 날아 갔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어린 기러기는 날아 가며 이곳 저곳 풍경을 살펴 보고 말할 수 없이 즐거웠으며 이제는 점점 늙어져서 날으는 속도는 줄어 들었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그렇게 먼 길을 똑바로 날아갈 수 있었던 아빠 기러기 옆을 맴돌곤 했습니다. 어렸던 어린 기러기는 그 여행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북쪽으로 먼 길을 날아 온 다음 아빠 기러기는 아픈 날개를 비벼 대면서 이제는 아들에게 마지막 여행의 지시를 내려 줘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빠 기러기는 원래 말이 적은 기러기였고 아들을 부른 다음 친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겨울에는 남쪽이 가장 안전하니라. 매년 나무 잎이 물들기 시작하거든 물드는 첫번 째 잎을 보는 즉시 남쪽으로 출발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날아갈 길을 찾게 될까요?” 자기가 날아다녔던 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고 살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어린 기러기가 물었습니다.

“아주 정신 차려서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더 계속할 듯하던니 아빠 기러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린 기러기는 도대체 무엇을 정신 차려 들어야 하는 지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용한 침묵이 흐른 다음 미처 그가 더 무엇을 묻고 대답을 듣고 할 사이도 없이 늙은 기러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늙은 기러기가 모든 기러기의 길잡이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 똑바로 여행길을 안내했고 기러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을 서곤 했으므로 늙은 기러기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여럿이 모여 아주 슬퍼했습니다.

아빠 기러기가 세상을 떠나자 젊은 기

러기는 무척 외롭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기러기는 솟놈의 깃털이 돌아나기 시작한 의모가 아주 아름다운 기러기였으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른 기러기들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그 지역의 길잡이 기러기로 임명하고 있을 때 그의 길고 강한 날개를 눈같이 흰 가슴에 자기도 모르는 곁에 비벼 뒀으며 많은 다른 처녀 기러기들이 그를 눈부신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해 여름에는 온갖 새로운 것들을 체험했고 새로운 춤추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른 기러기들과 늦게까지 논 후 피로 때문에 늦잠을 자고 일어난 그는 잎이 갈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일은 떠나야겠구나”,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조용히 끄덕거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 준 권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리에 되새겨 보았고 곧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 기러기가 눈을 비비고 일어났습니다. “어이, 자네 어딜 가는 거야?” 졸려운 목소리로 그는 물었습니다. “남쪽으로” 젊은 기러기는 대답했습니다.

“거 남쪽이라면 꽤 멀겠는 걸. 자네 정말인가?”

“물론이구 말구, 나는 오늘 떠난다네.”

“아니, 자네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뭘 하려구? 아니 이곳에 일년 내내 사는 친구들도 많잖아. 뭘 그래 날개 끝을 조금 잘라 내고 말야, 깃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늘 입안에 가득하도록 먹을 수 있을 텐데. 또 남들은 전혀 몰라볼거거든.”

“그거 아주 멋진 소린데” 젊은 기러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난 내 날개가 없다면 영 무용지물이라고 느낄 것 같애.”

“아, 처음이야 물론 답답하겠지, 그러나 차차 지나면 날개 끝이 좀 없어진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 내 생각인데 말야, 나는 짧은 날개가 오히려 편할 것 같애”.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젊은 기러기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난 그대로 가야겠네.”

“젠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리 급해? 자, 내게 한번 이야기해 보지. 그래 도대체 그 이유가 뭐지?” 그의 친구는 강경하게 대들었습니다. “아마 멋진 아가씨 기러기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지”.

멋진 아가씨 기러기가 있다고 대답하면 그 친구가 물려 서리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할까 했으나 그는 곧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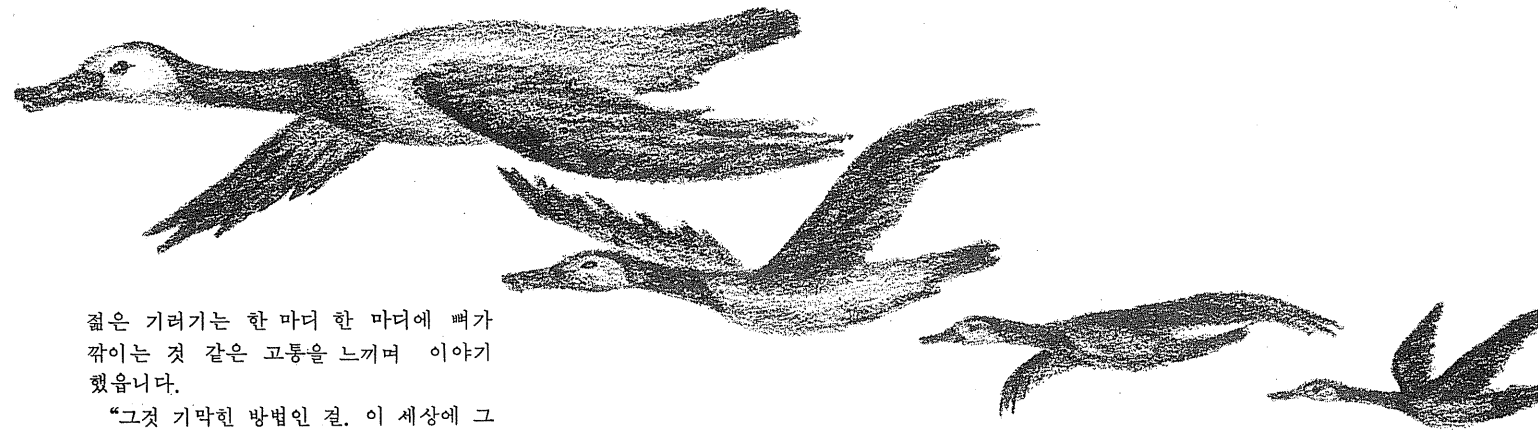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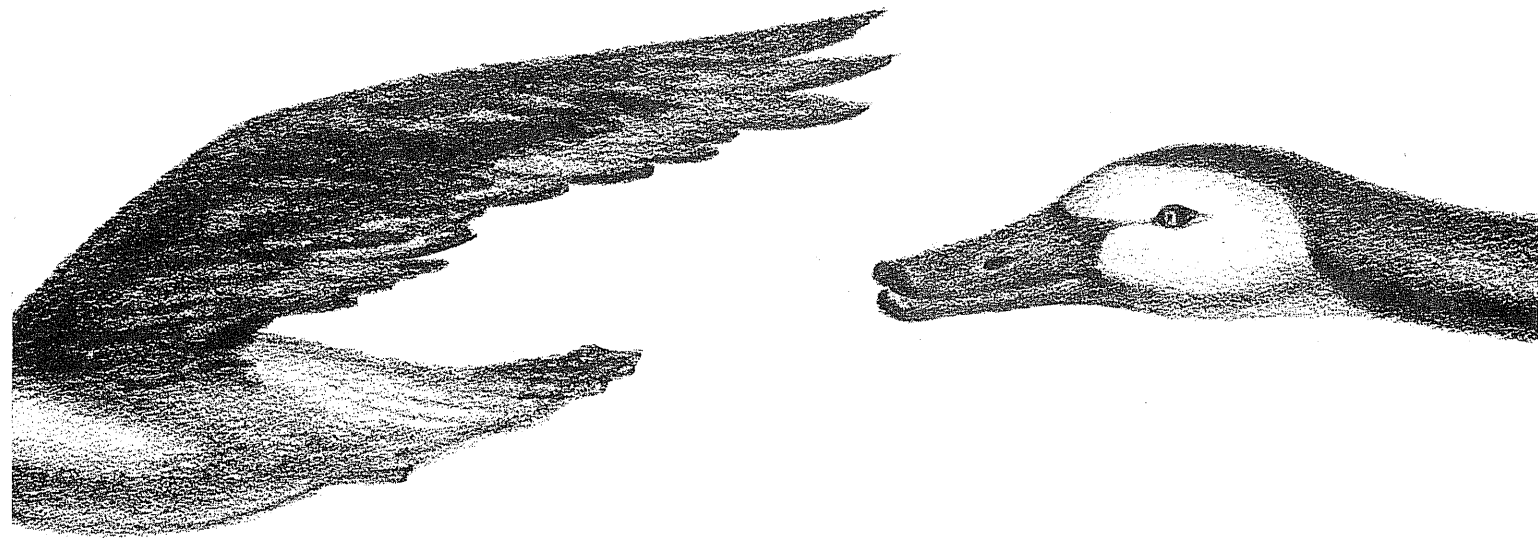
“겨울엔 남쪽이 제일 안전하다네”.

“자네 고작 떠나는 이유가 그건가”. 그의 친구는 자못 비꼬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이야기질세. 날 믿어 봐. 나 같으면 돌풍이 불어 닥치는 멕시코만을 가로질러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남는 길을 택하겠네. 자, 그건 그렇고, 자네, 정말 남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 갈 수 있겠나?”

“암, 그렇고 말고”. 젊은 기러기는 자신에게 오히려 확신을 안겨 주듯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자네 여행하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유지하면서 날아 가려고 그러나? 좋은 기계라도 있나?” 친구는 약간 놀리는 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 그런셈이지. 난 그냥 귀를 기울여 들으면돼. 알겠나. 듣는단 말일세”



젊은 기러기는 한 마디 한 마디에 뼈가 짝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기막힌 방법인 걸.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는 걸, 내가 최근 잡지에서 입수한 것인데 말일세, 사람들이 오랫동안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남북으로의 여행은 한 낮 망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네. 저들이 내 세운 근거는 자네가 내세운 그저 듣는다는 것 보다는 아주 확실한 걸세. 그런 방법이란 말하자면 동정을 금치 못할 그런 방법이지. 나는 정말 내 주변에서 그런 걸 믿는다고 내게 이야기할 사람이 결코 없을 줄 알았거든.”

“아, 내 방법은 말일세 그건 분명한 거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귀기우려 듣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네.”

“듣는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을테지.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들려 올만한 목소리가 있을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 어찌서 유독 자네 부친만 그 소리를 들었겠나? 이 근처에는 그걸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 어찌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걸 네 부친만 들으셨느냐 하는 그런 걸세?”

“아마 자네들 보다는 우리 부친이 그 음성을 듣기를 더욱 갈망하셨겠지, 그분은 매년 남쪽으로 가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되셨으니까 말일세. 이 곳에 있는 친구들은 내내 아무데도 가지 않았거든. 그리고 자네들은 그뿐이겠나,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단 말일세.”

“자, 그렇다면” 친구는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네 부친이 안계신 지금 그저 눈을 감고 날아가는 형상일세 그려. 자네나 나나 시력이 제한되어 있는 한 그런 여행을 시도할 때에 나는 적어도 몇 번 다짐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네. 날아가는 여행이란 눈으로 하는 거지 안개 속에서 소리를 듣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어쨌든 염려해줘서 고맙네.” 젊은 기러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정말 몇 번씩 되새기면서 생각했고, 마침내 생각하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가냘픈 소리였으나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생긴 소망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일단 땅을 박차고 날개를 펴니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렇게 별로 잘 듣지를 못했으나 그의 귀가 점점 예민해지고 예민

해져서 마침내 그는 안개가 짙게 낀 때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잘 들으면서 마침내 아버지가 그에게 들려 준 벌로 분명하지 않았던 설명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소리”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또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느낌이나 소리보다는 훨씬 강한 확신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구태어 설명하자면 저들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다고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음 봄에 먼저 자리로 돌아 왔을 때 그의 친구는 크리스마스 때에 이상스럽게 자취를 감추었다고 누군가가 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젊은 기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똑바로 날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똑바로 날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훈: 만약 앞일을 멀리 내다 보지 못하겠거든 차선의 방법인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라. ㉠

# 벨파스트로 부터의 보고

허버트 에프 머리

**수** 백년을 두고 서로 기독교인이면서도 상반되는 종교의 이념 때문에 싸움터에서 부딪쳐야 하는 두 민족이 벌이는 전쟁의 마당에서 주님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북부 아일랜드의 고난의 함성이 들리는 동안 과연 영적인 진전은 얼마만큼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일랜드 선교부의 선교부장인 클라이드 제이 섬머레이 선교부장은 울스터에서 있었던 동란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이 그곳에 살고 있는 말일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선교 사업은 그 곳에 그런 동란이 있었나를 의심할 만큼 그런 것에는 무관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는 바로 위협 지역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장로들은 굳건하고 용기가 있으며 주님의 종으로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선교사들이 각각 자기들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섬머레이 선교부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물론 선교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된 일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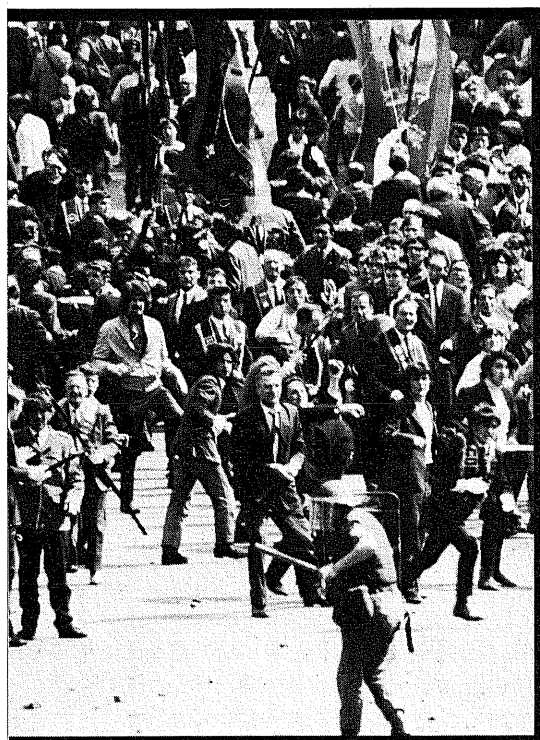
벨파스트에서는 교통 수단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 형편도 말이 아니며 기타 개인 자동차는 납치의 대상이 되고 그나마 형편을 봐서 움직이거나 완전히 문을 닫아 버리는 때가 허다합니다. 많은 회원이 담대하게 바리케이트를 헤치고 도보로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여 모임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거리에는 위협이 산재해 있으나 교회의 출석율은 향상되었습니다. 총소리와 대포 소리가 하도 심해서 선교부장단이 모임을 취소해야 할 때도 여러번 있었으나 함께 모여 금식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위협을 개

의치 않으시고 그의 사업이 계속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결론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칠레식도 세 곳 예배당에서 매주일 거행되었으며 다른 곳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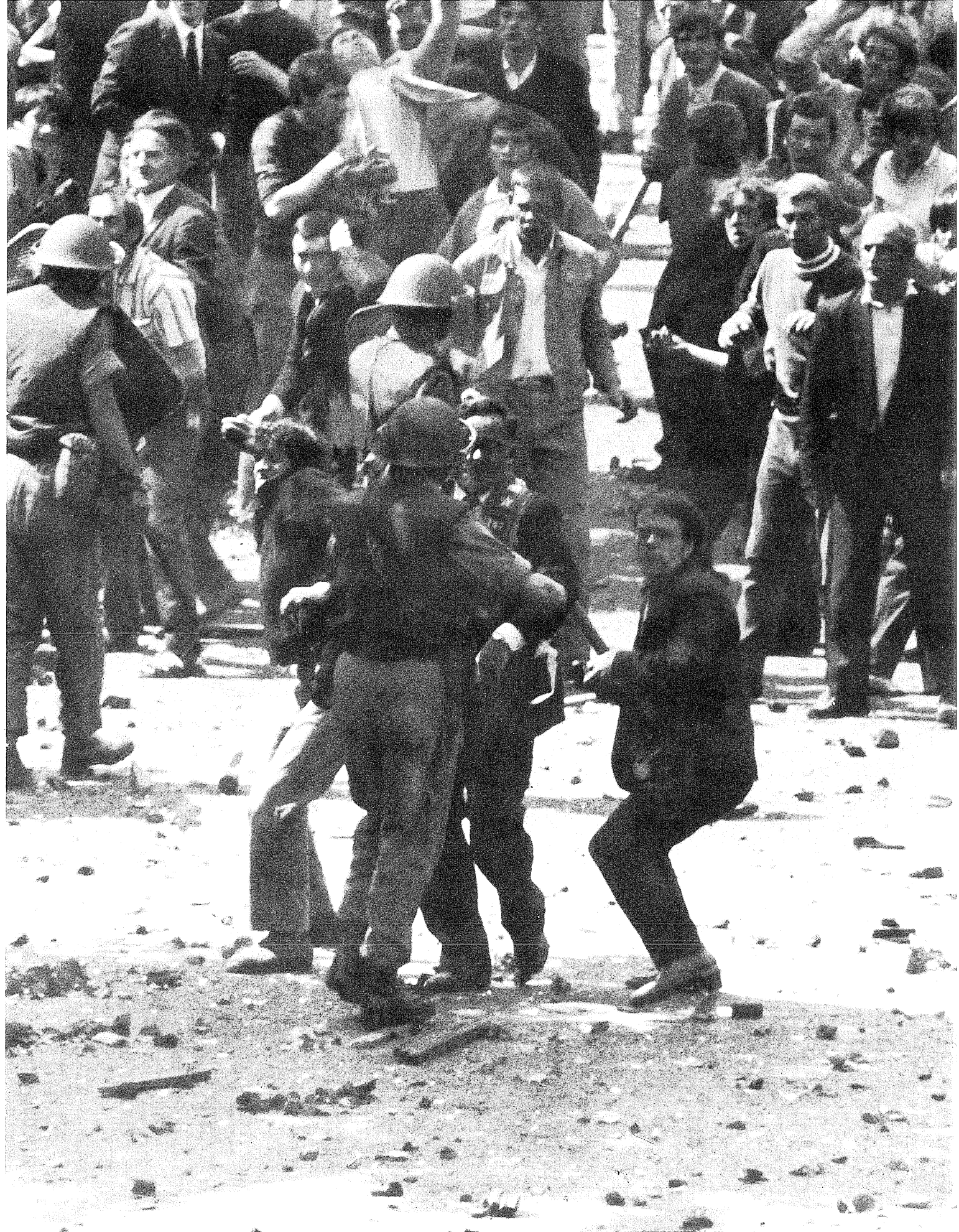
“우리는 아일랜드에 있는 성도들의 굳건한 신앙과 진지한 태도로 인해서 가장 영적이며 가슴을 뜨겁게 채워 주는 그러한 느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섬머레이 선교부장은 보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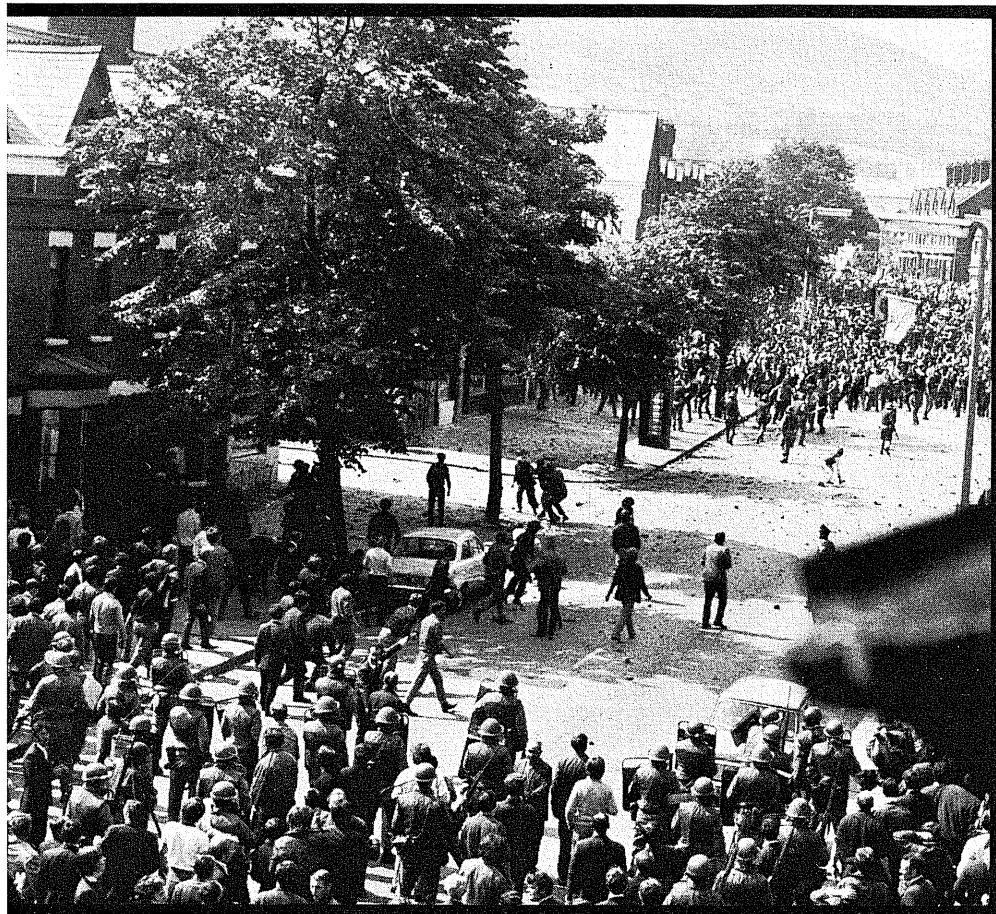
“아일랜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그분은 부연하셨으며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살기에는 더욱 좋은 곳입니다. 아일랜드가 존재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 사람들은 모두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 폭동이 계속됨에 따라 불안하게 된 사람들도 많지만 저들은 한결같이 아일랜드가 저들과 저들의 자녀에게 어떤 기회를 마련하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일랜드의 아름다움과 아일랜드의 필요함과 아일랜드의 따뜻함을 떠나 다른 곳,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랄리아, 미국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다시 돌아 오고 있으며 장차는 돌아 오는 사람의 수가 증가 될 것입니다.”

선교부장단 제일보좌인 데모트 웨일스 형제는 그곳에서의 선교 사업의 성공이 저들이 특히 신앙개조의 제11조와 제12조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능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든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



상: 벨파스트 스프링필드 로드에서의 무장충돌  
하: 시가전에 참가한 젊은이들  
우: 영국 무장군인과 대치한 시위자들





도움과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더욱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벨파스트에 살고 있으면서 온 세상 사람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고 사는 이곳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렌푸 지방 부장은 이와 같이 부연하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혼미한 상태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의 지역 문제가 온 세상에 시선을 집중시키게 된 문제로 발전한 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벨파스트의 사람들은 화평한 가운데 저들의 일상 생활을 하며 위험과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최선의 노력으로 이를 피하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건물이 언제 폭격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매일 매일 벨파스트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 상인과 여사무원과 상점 주인의 공헌을 높이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저들의 노력의 태도야말로 지금 북 아일랜드를 휩쓸고 있는 거센 바람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벨파스트와 북 아일랜드를 정상으로 이끌어 갈 불굴의 자세인 것입니다.

“대체로 교회 회원은 일치단결하여 (빌2:2 참조) 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관계치 않고 전진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주님의 사업은 진척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어려움이 대두된 지금 더욱 앞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 회원과 지도자는 만약 저들에게 주를 믿는 신앙이 있고 주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가능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시도한다면 저들의 행하는 일에서 축복을 받아 마침내는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는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표지가 되었습니다” 웨일스 형제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교회 회원은 거의 다 개종자들입니다. 개인의 인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종교로 평가하는 옛 관습은 차차 지나가 버린 과거지사가 되고 있으며 복음을 받아 들이는 회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곳 말일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시민들처럼 정부가 극렬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순찰, 교통 정리 등등의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교부장단이 각 지부와 지방부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모든 모임을 갖도록 정책을 굳힌 까닭에 마을의 일반 시민들도 “평상시와 같은 업무”란 간판을 꺼진 유리창 위에 내걸고 저들

의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사실상 받고 있습니다.” 웨일스 형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성도의 수를 증가시키고 또 이곳의 성도들을 격려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했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울스터 제일 지방부의 지방부장인 앤드루 렌푸 지방부장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실망한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몰려 오며 우리 교회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은 현재 아무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양쪽으로부터

# 몰몬 유우머

일요일 날이었다. 주일학교가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에 나는 내가 이분 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부지런히 교회 도서실로 뛰어가서 성도의 벗 최근 호를 들고 나왔다. 나는 내가 글을 읽을 수 있었으므로 별로 염려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첫번 이분 반 말씀이었으므로 착실히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멋있는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를 펼쳐들었다. 그리고 나는 회중 앞에 나아가서 그곳에 실린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깊이 감명을 받은 듯이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비로소 페이지 끝에 적힌 글을 보고 속으로 아차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는 “다음 호에 계속”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카렌 스미스  
네바다주 칼렌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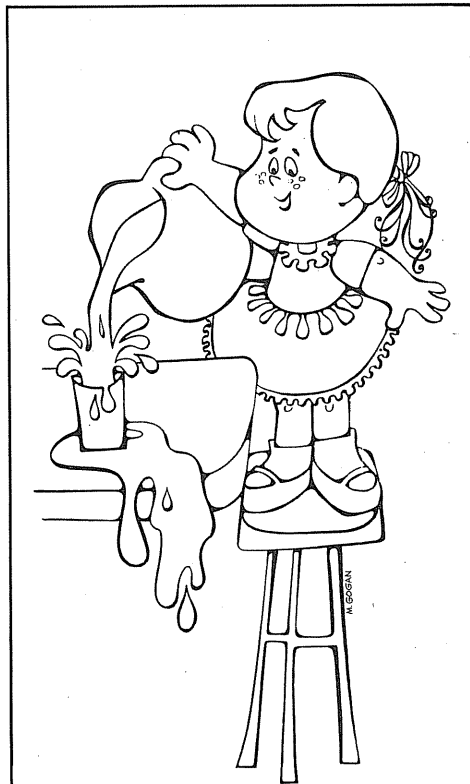
최근 가정의 밤에서 아담과 이브에 관하여 토론을 한 한 가정이 있었다. 그때에 아버지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가정의 밤 순서가 끝나고 음식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자녀 중에 하나가 벼란간 복통을 일으켰다. 그는 그 날 배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빠, 아마 곧 제가 부인

을 갖게 될래나봐요”

커트 벤취  
플로리다주 탈라하세

젊은 이 두 사람이 가정 복음 교육 기록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든지 내 뚝은 매달 첫날 해치운단 말야” 하나가 뽀내며 이야기했다.

“그건 아무 것도 아닐세” 다른 하



내 작은 여동생이 물주전자에 담긴 물을 유리 컵에 붓고 있었다. 주전자가 다 빌 때까지 물을 컵에 딸았다. 어머니가 마침 그것은 보시고 대체 무슨 짓을 하느냐고 물으시자 이렇게 대답했다. “저, 물을 빨리 쏟으면 컵에 모두 들어 있을 줄 알았어요.”

जू리 스페크만  
유타주 트랜톤시

나가 고개를 쳐들고 이야기했다. “난 언제든지 내 가정 복음 교육은 형제보다 하루 빨리 했단 말야!”

엘레인 헐터스툼  
캘리포니아 라.미라다시

한 다섯 살쯤 먹은 아이가 엄마와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해서 앞줄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 아이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팔에 앉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엄마도 아이도 모두 피로하고 지쳐 있었다. 안겨 나가는 아이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다. 막 문을 나가려고 하자 아이는 돌아다 보며 큰 소리로 소리질렀다. “도와주십시오, 감독님, 도와주세요!”

웬디 쥘스  
아이다호주 킴벌리

선교사들이 식사를 막 끝내고 후식을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케이크가 모두 들고 이들 선교사들에게 이르렀을 때 남은 조각은 둘이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다. 선임 동반자가 큰 조각을 자기에게 놓고 나머지를 후임 동반자에게 주었다.

“자네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나?” 후임 동반자가 물었다.

“정말이지 내게 먼저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난 틀림없이 작은 걸 택했을걸세”

“그럼 뭐가 그리 불평이 많은가?” 선임 동반자가 투덜거렸다. “그래서 자네에게 작은 게 돌아갔잖어.”

린 그린우드  
유타주 프로보시

한번은 동생이 아빠에게 선교사가 한 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파티가 끝날 때까지요” 그중 작은 동생이 대답했다.

자넬 클라크  
카나다, 온타리오 오샤와시



1973년 7월호

## 먼 훗날을 위하여

서울 스테이크 부장 이 호남 형제

어미 히드로 게들은 알을 조심스럽게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바다로 갑니다. 큰 바닷가에 다르면 그 알들을 바다물 속에 떨어뜨립니다. 참으로 잔인한 것 같이 보이나 어미게는 바다물에서만 알이 자라고 큰 게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잔인하다고 느끼는 행동마저 서슴치 않습니다.

어미 울새가 배고픈 새끼 울새를 사랑스럽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면 놀랄 정도의 모성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어미울새는 새끼를 쪼으며 등우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나르는 능력을 키워 줍니다. 때때로 새끼들은 힘에 지쳐 땅에 떨어지기도 하나 그럴 때마다 어미 새는 옆에서 도와 줍니다. 독수리의 경우도 이와 같으니 새 중의 새요 가장 높이 나르면서 새의 왕으로 군림하는 독수리는 그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잘 나르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를 넓은 바다 위에 떨어트리면 있는 힘을 다하여 날개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연습이 여러번 되풀이 되는동안 가장 높이 나르는 독수리가 되어 새중에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물 위에서 허덕이며 죽음의 직전에 있는 새끼 독수리를 보는 어미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고 괴로우나 먼 훗날에 영광을 위하여 어미는 새끼를 높은 하늘에서 바다 위로 떨어트리 단련시킵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이와 같으니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참된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보람 있는 앞날을 위하여 복음의 황금울을 가르치고 이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희생과 고난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훌륭한 인격의 중요성과 생에 있어서의 선을 감사할 줄 모르는 불행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미 독수리와 같이 자녀들에게 삶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동안 정직이 무엇이며 희생과 봉사의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를 양성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써의 축복을 허락해야 합니다.

1973년 3월 8일 역사적인 서울 스테이크가 탄생했습니다. 스테이크로 발족함은 주님 보시기에 마치 새끼 독수리가 바다 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같으니 우리 모두 고된 훈련을 신앙과 협조로써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배를짓는 선원이 되어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